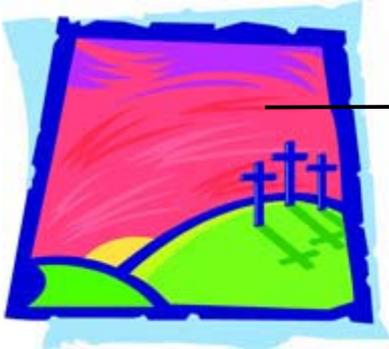


목 차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2
제1과 아담	4
제2과 이브	8
제3과 가인/아벨/셋	12
제4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	17
제5과 아브라함	21
제6과 이삭	26
제7과 야곱	30
제8과 요셉	34
제9과 유다	38
제10과 모세	42
제11과 아론	46
제12과 여호수아	50
제13과 라합	54
제14과 기드온	58
제15과 사무엘	63
제16과 사울	67
제17과 요나단	71
제18과 다윗	75
제19과 솔로몬	79
제20과 요아스	86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사랑침례교회는 청소년들이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 받으며(엡6:4),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법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해 가도록 <중고등부 주제별 성경공부- 3년 과정>으로 주일 설교 말씀과 공과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차 교재 <성경편1.2>를 마쳤고, 이제는 성경 66권 안의 대표적 인물 40명¹⁾을 선정해 2년차 교재 <인물편1.2>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 교재를 통해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하여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한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며,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 된 상태와 하나님 앞에 참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본 교재는 사랑침례교회 중고등부 공과 교재 3년 과정(성경편-1.2, 인물편-1.2, 교리편-1.2) 가운데 하나이며, 이 권에서는 <인물편-1>을 담고 있는데, 만일 순차적으로 성실히 중1부터 고3까지 주일 설교 및 공과공부를 하게 된다면, 대략 3년 과정을 두 번 공부할 수 있으며,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와 내용을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과 선택적 내용을 좀 더 자유롭게 다루어 가며, 주일 설교 및 공과 공부를 진행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교재는 <침례교 공과교재-요단출판>과 <인물별 성경연구-두란노> <에스라 성경사전> 등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고, 필요한 경우 <에스라 성경지도.선도>에서 중요한 그림을 발췌했으며, <사랑침례교회 강해설교>와 <킵바이블 사이트>에서도 필요한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특히 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로서 든든히 성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119:10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2015년 12월 24일

장 용 철

1) 중고등부가 <성경편1.2-총48과>를 1년 동안 공부하는 학습일정이 교회 행사 및 중고등부 자체 프로그램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2년차 교재인 <성경편1.2>는 총40과로 축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인물편-1.2>-교육과정 소개

순서	주제	분기	월	과	단원	제목
2년차	인물편	1분기	1	1	구약인물	아담
				2	구약인물	이브
				3	구약인물	가인/ 아벨/ 셋
				4	구약인물	노아와 그의 아들들
			2	5	구약인물	아브라함
				6	구약인물	이삭
				7	구약인물	야곱
			3	8	구약인물	요셉
				9	구약인물	유다
				10	구약인물	모세
				11	구약인물	아론
		2분기	4	12	구약인물	여호수아
				13	구약인물	라합
				14	구약인물	기드온
			5	15	구약인물	사무엘
				16	구약인물	사울
				17	구약인물	요나단
			6	18	구약인물	다윗
				19	구약인물	솔로몬
				20	구약인물	요아스
			3분기	7	21	구약인물
		22			구약인물	엘리아/ 엘리사
		23			신약인물	마태
		8		24	신약인물	마가
				25	신약인물	누가
				26	신약인물	사도 요한
		9		27	신약인물	침례 요한
				28	신약인물	요셉/ 마리아
				29	신약인물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4분기	10	30	신약인물	나사로
				31	신약인물	베드로
				32	신약인물	가롯 유다
				33	신약인물	나사로
			11	34	신약인물	도마
				35	신약인물	빌립
				36	신약인물	스데반
				37	신약인물	사도바울
			12	38	신약인물	바나바
				39	신약인물	고넬료
				40	신약인물	디모데

(☞ 하반기 제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1과 아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인류의 조상(대표 수장)인 아담²⁾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살아 있는 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며, 하나님으로 부터 땅을 채우고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 면에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아담은 에덴동산에 거하면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사탄의 유혹과 이브의 권유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으며 그 결과 자신과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아담은 “땅-붉은 흙”이라는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구절
▶ 창 1:26-31, 2:7, 2:15-20, 3:1-5 ▶ 롬 3:12-13 ▶ 고전 15:22, 15:45-49 ▶ 살전 5:23
3. 인물배경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첫 번째 인간이다(눅3:38).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 조상은 없다.
4. 성경은 아담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 1)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창1:26).
“우리가” 또는 “우리의”라는 말은 복수를 뜻한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다.³⁾
 - 2)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형상(image)⁴⁾은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며, 모양(likeness)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형을 의미한다(엡4:24, 골3:10)

2) ‘사람’, ‘**붉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말은 **성경**에 6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구약**성경에만 593회) 그 대부분은 보통명사로서 ‘사람’ 혹은 ‘인류’를 가리킨다. 그러나 창 1-5장에 등장하는 ‘아담’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 기간 중 친히 지으신 최초의 인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다(창 2:7; 대상 1:1). ‘아담’이란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한 말로 본다(창 25:30에서는 ‘붉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밝히고 있음).-<라이프 성경사전>

3) 창조는 하나님의 독창적이며 배타적인 일이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창조의 창시자이다(사 40:28; 골1:16; 창1:2). 이것은 유한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롬1:20).-<에스라 성경사전>

4)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본 뜬 것.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고후4:4; 골1:15; 히1:3) 이는 곧 그분께서 본질이나 특성에서 하나님과 같음을 뜻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창1:27) 영적, 지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의와 거룩함에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음을 뜻한다.-<에스라 성경사전>

3)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창2:7).⁵⁾

4) 아담은 영과 혼과 육을 소유하고 있는 삼위일체로서 창조되었다(창2:7).⁶⁾

5)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창2:8, 15).

6)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다(창1:28).

7)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17에서 인간에게 한 가지 한계선을 정해 놓으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⁷⁾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며,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2:16-17).

8) 유혹과 타락은 창세기 3장 1-7에서 발견된다.

여자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기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창3:6). 그리고 두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창3:7).

9) 하나님은 바로 그 날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셨고, 오늘 날도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창 3:8-13).

10)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씨(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직접적 예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셨으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사탄의 최종 멸망-롬16:20)이며,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여자가 씨를 갖게 되는 사건 곧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말해준다(눅1:35, 갈4:4). 또한 뱀의 씨는 여러 가지 악한 자들(마3:7, 12:34)과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계13:14)를 나타내는 것이다.⁸⁾

5)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확증해 주셨다.

6)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두 개의 세계 즉 물질세계와 영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지어졌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였다(살전5:23). 이 구절과 히4:12 등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임을 보여 준다.-<에스라 성경사전>

7) 성경에서 나무는 왕이나 재물 혹은 권세가 많은 사람을 상징하였다(시37:35; 사2:13; 단4:10-26; 속11:1-2).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창2:9, 17). 반면에 생명나무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생명을 부여하는 수단이었으며, 확증이며 영원한 거룩함과 축복의 봉인이 되었을 것이다(계22:2 참조).-<에스라 성경사전>

8) 사랑침례교회 <창세기 강해>-18과 中

11) 아담의 타락(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으며 (창3:17),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죽음 선고를 받았다(창3:19).

12)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다(창3:21).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coats of skins)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짐승을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야 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 죄를 덮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계신 것이다.

13)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만아들 가인과 둘째 아벨은 타락한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도망자가 되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들 말고도 여러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셋(seth)만 그 이름이 나와 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으며 자기의 후손들로 땅이 급속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에 땅에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매우 컸다. 그가 죽을 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6세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참회하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 최초의 역사를 충분히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4) 누가복음 3:23-38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 죄는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롬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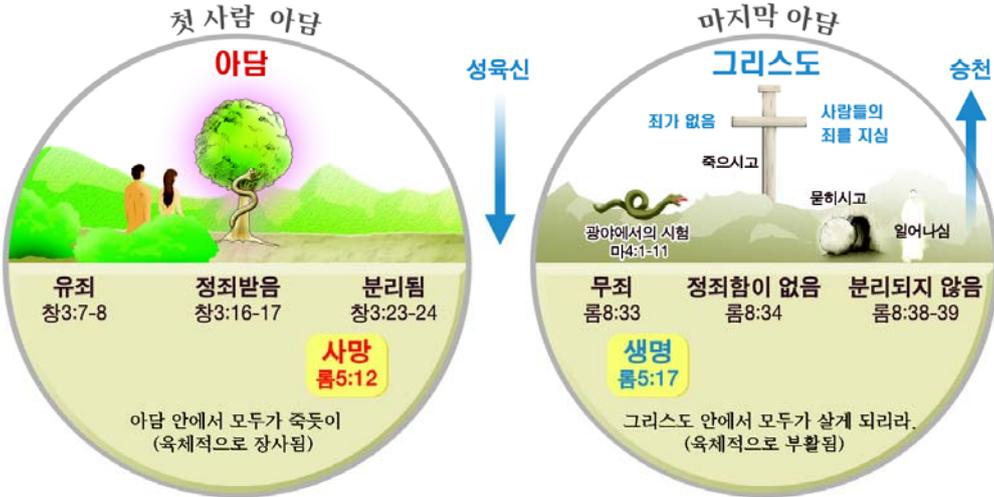
아담 vs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떨어진 저주는 황폐한 땅에서의 수고와 노동 그리고 육체적 소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이 영존하는 죽음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타락하던 날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후자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죽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곧 모든 인류에게 이런 운명이 떨어진 것이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보았다.

바울은 많은 곳에서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얻게 된 생명을 대조해서 보여 준다(롬5:1-2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에게 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과는 달리 아담으로 인한 최고 수준의 사망은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놓여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이며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으며, 그의 온 몸과 영과 혼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 불리시는데(고전15:45), 그 이유는 아담이 그의 모든 씨에게 죄와 사망과 슬픔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분 스스로가 모든 영적 씨(seed)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두 아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창5: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마1:1).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15:45).

성경은 두 명의 상징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라 불리며 두 번째 인물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혹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고전 15:47) 등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첫째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책임을 지고 있다(롬5:12).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이 행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죽,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왔다(롬5:17; 히9:26). 구약성경은 첫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창5:1-27). 구약성경에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느헤미야 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들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도시를 소망하면서 결국 죽었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의 모든 세대들이 죽는다는 것이 구약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핵심이다. 반면에 신약성경은 사람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분, 영원한 도시를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맞으러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세대 뿐이 없다(시22:30; 사53:8; 벧전2:9). 그분 안에는 단 한 세대뿐이 없으므로 그분에게서 난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모두 형제/자매이다. 마귀는 세상의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요일2:16)으로 첫 아담을 좌절시키고 죄를 이 땅에 가져왔으나(창3:5-6)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마4:1-11)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남으로써 마귀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수했다(히2:9-18).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육체로 부활한 것 같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 것이다(고전15:51-57; 살전4:13-17).

제2과 이브

온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 이브(Eve)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브라는 이름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창3:20), 그녀는 남자를 돕기 위해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창2:18-22; 고전11:1-16). 성경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숙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딤후2:9-15; 벰전3:1-7). 특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 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여야 한다(엡5:28-33).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성경에서는 이브에게 3가지 이름들이 적용된다.

1) 여자: 그녀는 “이쉬”(히브리말-남자)에서 취해 졌기 때문에 “이쉬”(히브리말-여자)라고 불린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는 뜻이다.

2) 사람: 그녀는 아담과 함께 사람으로 불린다(창1:27, 5:2).

3) 이브: “이브”는 타락한 후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이며(창3:20), 아담은 그녀를 이브(Eve)⁹⁾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이브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이다. 즉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중요한 성경구절

▶ 창세기 2장-5장 5절 ▶ 고린도전서 11:3-12 ▶ 디모데전서 2:15 ▶ 에베소서 5:21-33

3. 인물배경

이브는 최초의 여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소산이다. 또한 그녀는 육신적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창조하신 사람이다. 창세기 2장 21-22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창2:23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 중 하나로 만드신 이브를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라고 고백하며 “여자”라 부른다. 한편 여러 시대를 통한 여자¹⁰⁾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브에게 선고하신 특별한 형벌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창3:16).

9) 이브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여자인 **하와**(히브리어: חַוָּה, Hawwāh/ 라틴어-Eva/ 그리스어-Eύα/ 아랍어-حواء)의 영어 이름이다.-<위키백과>

10) 성경은 여인들을 남자의 종이 아니라 사랑 받는 조력자로 묘사한다(창2:23-24). 여자는 남자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남자를 돕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창3:16; 고전11:3-9; 14:34-35; 딤후2:11-14).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서로 연합된 한 몸이 되기 위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다른 이교도들의 책과는 달리 여인들을 존중히 여기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여성상을 담고 있다.-<에스라성경사전>

4. 성경은 이브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그녀는 최초의 여인, 최초의 아내였다(창2:18; 24).

이브는 아담 위에나 아래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둘은 한 육체이다. 그들의 두 심장은 각자를 위해 한 몸과 같이 고동하고 있는 것이기에 결혼은 반드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결혼은 단순히 시민의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라 볼 수 있다.

2) 이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브는 최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죄를 상속 받지 않았고 청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세상에서 최초의 죄인이 되었으며, 범법 가운데 있게 되었다(딤후2:12-15).

3) 이브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뱀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데(레11:10, 41), 성경은 뱀이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창3:1; 마10:16; 23:33). 물론 우리는 이 옛 뱀이 큰 용 즉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창3:13; 고후11:3; 계12:9; 20:2). 바로 이 뱀이 간교하게 여자에게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유혹의 질문을 하였고(창3:1), 이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말씀을 바꾸었으며(창3:2-3),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New Age의 믿음을 소개한다(창3:4-5).

- ▶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불멸과 윤회의 사상을 전달
- ▶ 너희 눈이 열린다-->신비주의 소개
- ▶ 너희가 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아닌 상대주의를 통한 선악의 분별이 가능하다.

4) 이브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¹¹⁾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가 먹도록 하였다(창3:6). 또한 사탄은 현 시대에도 이브를 넘어지게 했던 그 유혹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요일2:15-16; 마4:1-10).

- ▶ 먹기에 좋은 나무-->육신의 정욕
- ▶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안목의 정욕
- ▶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생의 자랑

11) 이브는 사탄의 유혹 넘어가 속아서 범죄 한 것이며, 아담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다(딤후2:11-15).-<창세기강해17과 中>

6) 이브는 아담과 함께 최초로 옷을 입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 한 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Apron)¹²⁾를 만들어 입었다(창3:7).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숨기려는 듯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게 되었다(창3:8).

7) 이브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 예언의 중요 인물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나(하나님)는 사탄과 그리스도(여자의 후손) 사이를 증오와 적대심의 관계로 놓을 것이다. 중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부술 것이며,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8) 이브는 인류 최초의 어머니였다(창4:1-2).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브는 수태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브

1.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셨고, 여기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확증하신다(마19:4-5).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2. 바울은 교회와 이브를 비교한다(고후11:2-3)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3.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엡5:25)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엡5:31)

12)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 무화과 잎으로 ‘앞만 가리는 치마’를 입었다(창3:7).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적 특징이다.-<에스라성경사전>

결혼 이야기

결혼 제도는 창세기의 안식일 제도¹³⁾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규례이다(창1:27-28; 2:18-24). 또한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만든다. 기독교는 결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며 참된 사랑이 그 기초이고 서로의 행복이 그 잣대가 된다고 믿으며 심지어 남녀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말로 할 수 없는 신성한 결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엡5:22-33). 그러므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여인들은 가장 행복하고 존경을 받으며 귀한 존재이다. 신자들은 행복을 위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전7:39; 고후6:14-18). 고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제약 조건들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향한 교훈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을 한 경우의 악한 결과들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보여 준다.¹⁴⁾

하나님께서서는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일처 제도를 확립하셨고(말2:15),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다처제를 실행한 인물이었다(창4:19-24).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았지만(창6:2),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한 아내만을 두었다. 또한 욥도 한 아내만을 두었으며 나훔, 룻,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한 아내만을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다처 제도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되었고 성경은 이런 악습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잘 보여 준다(창16:7-16; 샬8:30; 삼하3:3-5; 왕상11:1-8; 대하11:18-21; 13:21).

한편 천주교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 즉 결혼에 불명예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독신을 장려하고 신부와 수사와 수녀에게 종신 및 독신을 부과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르치고 있다. 실로 이렇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세의 일 중 하나이다(딤후4:3).-<에스라 성경사전 요약>



13) 하나님은 옛세 동안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창2:2-3). 그분께서는 이 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으므로 이 날에 복을 주고 그것을 거룩히 구분하며 자신을 경배하는 날로 삼으셨다. 창세기에는 안식하는 날을 제정하신 기록이 들어 있다.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보이며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흔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에스라성경사전>

14) 참고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의무에 관해선, 엡5:22-33; 딤후2:11-12; 벰전3:1-7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3과 가인 아벨 셋

아담은 사탄의 유혹과 이브의 권유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으며, 그 결과 자기와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에덴동산과 생명나무에서 쫓겨나 엄청난 수고와 노동의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그는 후손들에게 자기의 타락으로 인한 열매들을 증언 하면서, 죄의 열매가 가져다주는 쓴맛을 느껴가며 살아갔을 것이다.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맏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고, 이들은 타락한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서 태어나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도망하며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아담의 셋째 아들 셋(Seth)은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낳은 아들이며, 아담은 셋을 낳은 이후로도 팔백 년을 살며 많은 아들딸들을 낳았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 ▶가인: “획득” 또는 “소유”를 뜻한다.
- ▶아벨: “호흡” 또는 “공상”을 뜻한다.
- ▶ 셋 : “대신 주셨다” 또는 “그분께서 정하셨다”을 뜻한다.

2. 중요한 성경구절

- ▶창세기 4.5장 ▶누가복음 3:38 ▶히브리서 11: 4 ▶요한일서 3 : 11-15 ▶유다서 11절

3. 인물배경

아담과 이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 면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들은 에덴동산에서 타락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가 타락한 이후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게 되었다.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에 관한 책”인데, 우리는 최초의 가정 곧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통해 그의 가족 구성원인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4. 구약성경은 가인, 아벨, 셋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가인(Cain)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창4:1)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멸했다(창 4:6-9). 그에게 내려진 형벌에는 육신적인 고난과 궁핍, 양심의 불안감, 사회에서의 격리,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창4:16).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긍휼도 베푸셨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심판자임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는 에덴의 동쪽 늦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지었다. 특히, 신약성경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며(요일3:12) 가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유11).

2)아벨(Abel)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로 그는 목자가 되어 자기 형 가인이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 양떼에서 희생물을 취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헌물에 관심을 두셨으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이에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창4:1-15).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곧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음을 보여 준다. 피 흘리는 일을 통해 아벨이 믿음으로 바친 희생 헌물은 피를 흘리는 일을 통해 죄를 속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는 생명의 피를 흘려 드리는 희생 예물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 흘림의 속죄를 신뢰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예물이 된 것을 믿는 믿음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 증언하시며 이로써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언을 얻은 것이다(히11:4). 이제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 소리는 복수를 요구하지만(창4:10) 그리스도의 피¹⁵⁾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용서와 구원을 요구한다(히12:24; 요일1:7).

3)셋(Seth)

아담이 죽은 뒤 아담이 얻은 아들(창4:25-26; 5:3-8)로 그는 경건한 족장들의 선조가 된 인물이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한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는 이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셋”에게도 아들 “에노스(Enos)”가 태어났으며,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the name of the LORD)을 부르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 같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인 vs 아벨 vs 셋>

1. 가인

신약성경은 가인에 관한 인용 구절을 통하여 몇 가지 유용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요일3:11-12)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유11)

15)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신성하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대속하고(엡1:7; 골1:14; 벰전1:18-19; 계5:9) 씻지 아니하며(벰전1:18-19) 사람과 하나님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며(롬5:9)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준다(엡2:13). 또 그 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골1:20) 우리를 용서하며(엡1:7; 골1:14; 히9:22)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히9:14)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히9:23)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한다(요일1:7; 계1:5; 7:14).-<에스라성경사전>

신약성경에서 가인은 형제를 미워한 대표적 인물이자 사탄에게 속한 전형적 악인으로 언급된다(요일3:12; 유1:11).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땅의 열매 중 하나님께 가져온 그의 헌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생명의 희생 곧 피 흘림의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히11:4).¹⁶⁾

2. 아벨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 피”를 연상케 되며, 아벨의 피가 복수심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긍휼과 속죄와 용서를 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히12:22-24)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의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의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마23:34-35)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의로운 아벨”이라고 언급하셨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인물 중 첫 번째로 언급되어있다. 성경에서 아벨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히11:4).

3. 셋

신약에서 셋(Seth)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의로운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아들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인물이며, 우리는 셋(Seth)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메시야가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계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눅3:38)

16) 아무튼 오늘날까지도 가인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현대 영어에서도 ‘가인’(Cain)은 ‘살인자’의 완곡한 표현으로, ‘씻지 못할 오명’을 가리켜 ‘가인의 표’(the brand of Cain)로 표현한다. 또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실 때 했던 가인의 유명한 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Am I my brother’s Keeper, 창 4:9)는 자신의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다.-<라이프성경사전>

가정(Home)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으로 사람의 모든 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집단이다(창 1:27-28; 2:18-24; 3:16).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족과 부족 즉 지파라는 혈족 관계의 집단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고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가족의 족장이 종교의 중심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경우 어머니는 젖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유년기 예절을 가르쳤고 소년기에는 아버지가 교육을 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민족 역사를 가르치며 신앙심과 애국심을 키워 주었다(출13:8; 신4:9). 십계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고(출20:12) 잠언은 그것이 행복의 기초라고 가르친다(잠13:1; 19:13). 또한 성경은 가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의 계보 특히 메시아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한다(창5; 대상1-8; 마1:1-17; 눅3:23-38).

기독교의 윤리는 가정이라는 제도와 기관에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일부일처제를 확증한다(마19:5; 막10:6-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법규는 매우 명백하여 부부간의 결혼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집안의 모든 체제를 존중히 여긴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딤후5:8) 힘닿는 대로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출12:26-27; 신6:6-7; 엡6:4).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눅2:51; 엡6:1; 골3:20) 부모를 공경하고(출20:12; 엡6:1-2) 감사의 보답을 해야 한다(딤후5:4; 요19:26). 그러므로 가족 혹은 가정은 사회의 첫 번째 형태로서 모든 사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좋은 가정이 모이는 교회라야 바른 지역 교회가 될 수 있다.

어머니(Mother)

히브리어로 ‘암’과 ‘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하며 이것은 어린아이가 발음하기에 간편한 그런 말이었다(사8:4). 또한 어머니라는 뜻 외에도 ‘암’은 할머니를 가리키거나(왕상15:10) 오래된 여자 조상을 가리키기도 한다(창3:20). 또 이 말은 주요 도시를 가리키거나(삼하20:19), 은혜를 베푸는 여인(삿5:7) 혹은 모국이라는 차원에서 민족이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사3:12; 49:23). 성경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종종 언급되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사용하셨다(사49:15). 인류 역사에서 어머니들은 자기 후손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어머니의 관심과 돌봄에 의해 큰 사람이 되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어머니들의 사랑과 인내와 열심과 헌신은 수많은 자녀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시켰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4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면한 족장이다. 이로써 그는 아담 이후에 두 번째로 인류의 조상이 되었으며, 노아의 삶과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5-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 ▶ 노아: “안식” 또는 “위로”를 뜻한다.
- ▶ 셈: “명성”을 뜻한다.
- ▶ 함: “뜨겁다”를 뜻한다.
- ▶ 야벳: “아름다움”과 “그로 창대케 하라”는 뜻이다.

2. 중요한 성경구절

- ▶ 창세기 5:21-10:1
- ▶ 마태복음 24:37-39
- ▶ 히브리서 11:7
- ▶ 벰전 3:20
- ▶ 벰후 2:5

3. 인물배경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므두셀라의 손자였으며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다. 홍수 이후에 그는 35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씨가 될 것을 바라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것 같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족장들의 계보에 속하였고 의인이요(겔14:14, 20) 또 의의 선포자였다(벰전3:19-20; 벰후2:5). 그는 120년 동안 선포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마 24:37).

노아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였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였다(히11:7).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우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이후에는 그가 포도주에 취해 잠을 자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기사 외에는 특별한 다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아의 방주(Ark of Noah)

방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은 대홍수 때에 노아의 여덟 사람이 들어가 생명을 보존한 배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방주라는 말은 단순히 궤를 뜻하는데(출2:3),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항해를 하는 배라기보다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집임을 보여 준다. 이 배는 3층

으로 구성되었고 측면에 문이 있었으며 위에 즉 지붕에 창문들이 있었다(창6:16; 8:13). 1큐빗을 45센티미터로 환산할 때 방주의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35, 22.5, 13.5미터였다. 방주는 고펀나무로 지어졌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가 되었으며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새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암수 일곱 마리씩, 부정함 짐승 중에서 암수 두 마리씩을 태울 만큼 컸다. 성경은 노아의 순종과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한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천사와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 인류를 완전하게 보존하기 어렵게 되자(창6)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사악한 자들과 그들의 부패된 자손을 모두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 순수하게 인류의 피를 보존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 사탄의 꾀계를 무찌르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다. 노아는 기적을 통해 이 모든 일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지시를 받았다. 바로 이런 기적의 능력을 통해 그는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완전한 방주의 설계를 얻고 그것을 제 시간에 완벽하게 지을 수 있었다. 대개 홍수가 생기기 120년 전에 노아가 이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창5:32; 7:6; 6:3; 벰전3:20 비교).

대홍수(Deluge)

노아 시대 온 땅을 덮은 대홍수로 인해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여덟 명 뿐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어 이 사건을 기록했다(창6:1-22; 7:1-24; 8:1-22). 사람들의 죄들은 대홍수의 근본 원인이었으며 연대기를 볼 때 주전 2348년경에 홍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여덟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뒤 시작된 홍수는 40일간 비를 뿌렸고 하늘과 지하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창7:11-12).

이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과 땅에 거하던, 숨을 쉬는 육체는 다 멸망했다. 그 후 다섯 달 동안 물이 계속해서 불어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보다 7미터 정도 위에까지 물이 늘어났다. 그 뒤 물이 줄어들어 높은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랏의 산들 위에 닿았다. 그 뒤 3개월이 지나면서 작은 산들이 보였고 다시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 뒤 그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표적으로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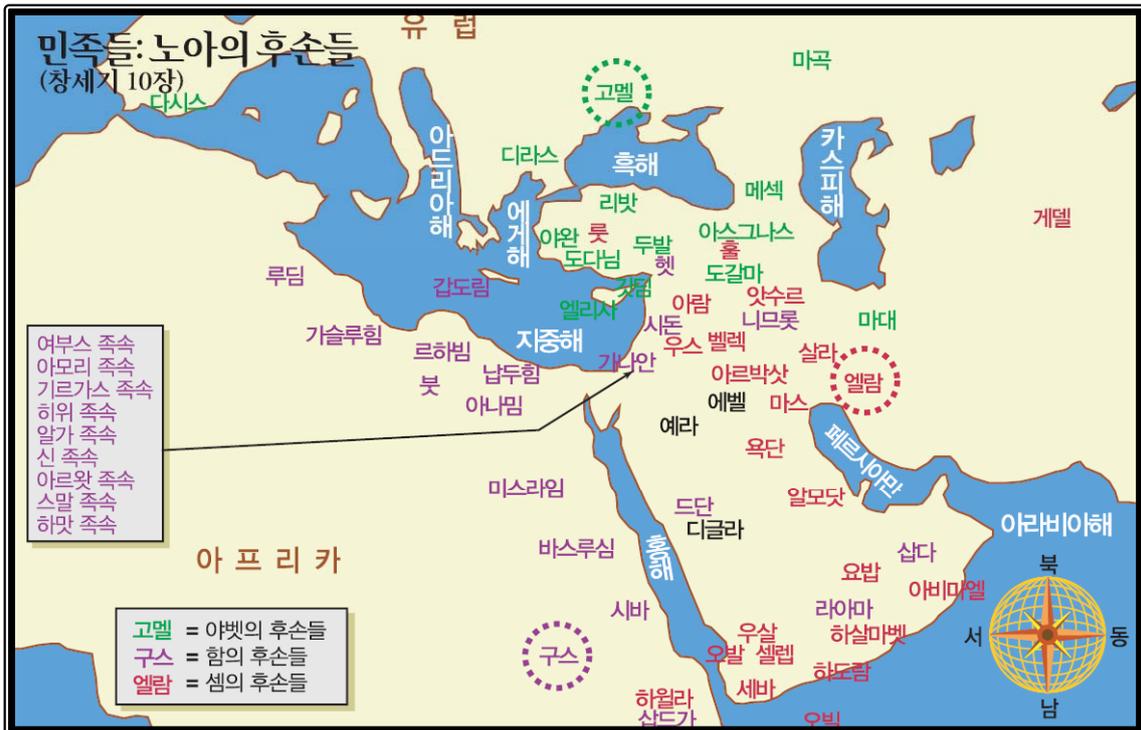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므로 대부분 민족들의 전설에는 홍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집트, 갈대아, 페니키아, 그리스, 중국 사람들의 고대 이야기도 이것을 지지한다. 신약성경은 노아의 대홍수가 창조와 이 세상 최후의 심판 때의 불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노아의 대홍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사용되었고(벰후3:5-7)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 주는 데도 사용되었다(마24:38).

신약성경이 말하는 노아 그리고 교훈들

1.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와 홍수를 자신의 재림과 비교하신다(마24:37-39).
2.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히1:7).
3. 베드로는 홍수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벧전3:20; 벧후2:5). 특히, 베드로후서 2장에서 는 여덟째 사람 노아를 언급할 때, 그를 “의의 선포자”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4.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신다.
5.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이런 면에서 방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다.

노아의 후손들

홍수 이 후 노아의 세 아들은 자식을 낳아 온 땅을 채웠으며, 바벨탑¹⁷⁾에서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장자 야벳은 주로 유럽을, 둘째 셈은 아시아를, 그리고 막내 함은 아프리카를 차지하였다.



17)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후 120년이 지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지은 높은 탑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창10:10; 11:9). 그들이 도시와 탑을 쌓은 것은 거기에 자리를 잡고 흠어지지 않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홍수 후에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쓰게 하시고 결국 온 세상으로 흠어지게 하셨다(행2:1-11). -<에스라성경사전>

생각해보기

■질문: 창세기 5장과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노아에 대한 기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¹⁸⁾

■대답: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기사를 보면 노아는 아담의 십대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대상 1:1-4)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를 가리켜 여덟째 사람이라고 하니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벧후2:4-5)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번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의 문맥은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로 여덟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올랐다면 그는 여덟째 사람입니다. 여기의 문맥은 결코 노아가 아담의 십대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들은 아예 사본을 뜯어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일곱 식구를’ 첨가시켜 놓았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개역성경 벧후2:5)

이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들의 말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들’(words) 즉 ‘단어들’을 보존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18) 출처-킵바이블 성경 Q/A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qna&write_id=157

제5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동방의 족장, 통치자, 재산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갔으며, 그가 묻힌 땅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성실함과 관대함 그리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요동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주저하거나 일을 미루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졌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시련과 단련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에 그는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 ▶ 아브람: '존귀(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새 이름을 얻기 전의 옛 이름(창 11:26-27; 13:1-2).¹⁹⁾
- ▶ 아브라함: "많은 민족들의 조상(a father of many nations)"라는 뜻이다(창17:4-5).

2. 중요한 성경구절

- ▶ 창 11:10-25:9 ▶ 사 41:8, 51:2 ▶ 요 8:33-39 ▶ 행 7:2-8
- ▶ 롬 4:13-25 ▶ 갈 3:6-29 ▶ 히 11:8-13 ▶ 약 2:21-23

3. 인물배경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라(Terah)²⁰⁾의 아들로 태어난 갈대아인이다. 그는 셈계통의 후손으로 메시아 탄생의 족보 안에 드는 인물이며(창11:10-26), 사촌 여동생 사래와 결혼하였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말아들 하란²¹⁾이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래와 롯(아브라함의 조카)을 데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하였고(창11:31),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 그의 나이 75세에 다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창12:1-6).

많은 경우 유대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흠모하며 이런 점에서 그는 인류 역

19) 언약 체결 후 '아브라함'이라 개명(改名)한 것은 인생의 큰 변화를 시사하는데, 특히 믿음의 계보를 새롭게 만들어 갈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상을 암시해준다. 즉, 아브람의 개명은 한 개인에서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창 17:5; 대상 1:27).-<라이프성경사전>

20) 나홀의 아들. 그는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창11:24) 갈대아의 우르에서 72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 함께 갔고(창11:31-32) 그는 거기서 205세에 죽었다. 성경은 데라가 우상숭배를 했거나 혹은 참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음을 보여 준다(수24:2, 14).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행하였으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숭배가 헛된 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믿는다.-<에스라성경사전>

21) 데라의 말아들-그는 아브라함의 형제이며 롯과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창11:26-31).-<에스라성경사전>

사를 통해 가장 많이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실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충만하게 성취되었다. 그의 육적인 씨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들 같이 되어 영원토록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창17:4-5)이며 특별히 유대 민족의 창시자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쎈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로 B.C. 1996년경에 갈대아의 우르에서 태어났으며(창 11:27-28) 거기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들을 뒤로 한 채 아버지와 아내 사래와 형제 나홀과 조카 롯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들어갔으며(행7:2-4) 그 뒤에 유랑하는 목자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세겔에서 머무는 동안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땅 즉 팔레스타인을 그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물과 초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창12:1-20). 양과 재물이 풍부한 상태로 가나안에 되돌아온 그는 롯을 요르단 하부의 비옥한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마므레에 장막을 쳤으며(창 13:1-18). 그 뒤 몇 년이 지나 그는 포로로 잡혀간 롯과 그의 친구들을 구출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창14:1-24).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그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그 뒤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창15:1-21). 그러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었고 그녀는 이스마엘을 낳았다(창16:1-16).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상속자가 그의 아내 사래를 통해 나올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으며,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다(창17:1-27). 또한 여기에서는 세 천사가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소돔의 거주민들을 위해 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이 생겼다(창18:1-33). 그 뒤에 그는 다시 남쪽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서 이삭이 출생하였으며 하갈과 이스마엘은 새로운 곳으로 추방을 당했다(창21:1-34). 그 뒤 약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창22:1-24). 12년 뒤에 사라가 죽자 그는 막벨라 굴을 소유 매장지로 구입하고(창23:1-20)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하였다(창24:1-67). 그 뒤 그는 그두라와 결혼하고 여섯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다 아라비아에서 특정 부족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175세에 연로한 상태로 명예롭게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사라가 있는 같은 무덤에 장사지냈다(창25:1-34).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신 것이었다.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것이다 (창14:13). 그는 예언을 하거나 책을 쓴 적이 없고 율법을 만든 일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의 상속인으로 선별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 의지를 보여 준다. 이 둘은 구원 교리를 이루는데 필요한 두 개의 짝으로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고 자유 의지는 사람 편에서의 일이다. 선택의 교리가 왜곡되면 운명론 혹은 무능력 교리에 빠지게 되고 이로써 사람은 자유 의지를 부인하며 구원받는 일에 자기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함과 야벳 대신 셈을, 나홀 대신 아브라함을, 에서 대신 야곱을,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선택하신다(롬 9:15-21; 참조 요15:16; 행13:48; 엡1:4-5; 살후2:13; 딤후1:9). 하나님은 심지어 창세 전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으며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행 13:48)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

1)요한복음 8:33-39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다.

2)사도행전 7:2-8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기 전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소명이 왔던 것이다(2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확증하고 있다(특히 8절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로마서 4:13-25

바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13절). 로마서 4:20-24을 보라.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고 하였다. 바울은 우리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4)갈라디아서 3:6-29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갈3:14-16을 보라, 16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고 하였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갈3:17-19).

5)히브리서 11:8-19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시험을 받을 때에 독생자 이삭을 바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이삭을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모형으로 받았다.

6)야고보서 2:21-24

야고보는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다. 또한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²²⁾(the Friend of God)”라고 불린다.(참고-사41:8, 대하20:7)

 아브라함의 이동 선도



2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명예를 얻었다(사41:8; 약2:23).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출33:11).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일 것이다(삼상18: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명예와 복을 주셨다(요15:15). 그분께서는 유대를 가리켜서도 친구라고 하셨지만(마26:50)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동반한 무리를 뜻하며 그것은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는 다르다(마20:13; 22:12 참조). -<에스라성경사전>



생각해보기-언약(covenant)

언약이란 쌍방이 합의하는 약속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우처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무한히 월등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이의 본성을 나타낸다(사59:21; 렘31:33-34; 갈3:15-18).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들과의 첫 번째 언약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루어졌다. 두 번째 언약은 사실 첫 번째 언약을 엄숙하게 갱신한 것으로 시내 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는 ‘새 언약’은 그분의 피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갈4:24; 히7:22; 8:6-13; 9:15-23; 12:24).

하나님의 언약들은 희생을 드림으로 비준되었는데 이는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복과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창15:1-8; 출24:6-8; 히9:6).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뛰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특정한 언약들을 받았으며 여기서 그분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잠정적인 호의를 베푸셨는데 사실 이것들은 대개 영존하는 언약을 개인에게 갱신하신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잠정적인 것들은 실체를 보여 주는 예표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과 언약을 맺었고(창9:8-9; 17:4-5; 시89:3-4) 이후에 나타날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롬3:25; 히9:15).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라틴어는 ‘테스타멘텀’(Testamentum)이며, 여기서 영어 ‘테스타먼트’가 나왔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영어로 ‘Old and New Testaments’라 불린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신자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두 언약은 다른 모든 것을 즉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가장 완벽하고 엄숙한 언약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영원토록 유효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피로 입증되었으며 그 목적은 영존하는 생명이고 그 안의 내용과 법규는 이전의 어느 언약보다 더욱 고결하다.



제6과 이삭

이삭(Isaac)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창17:17; 18:12; 21:6)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선조 중 하나이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21, 24-28, 3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그의 부모가 아기를 낳지 못할 정도로 연로할 때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에 따라 출생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이복 형 이스마엘(Ishmael)의 시기를 받았고 이로써 약속의 자녀의 상징이 되었다(갈4:29).



인물 연구

1. 이삭은 누구입니까?

- ▶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창21:3).
- ▶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창24:67).
- ▶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Esau)와 야곱(Jacob)을 낳습니다(창25:20-26).
- ▶ 이삭은 180세에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 ▶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창28:1-4).

2. 인물배경

성경에는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삼손, 다윗,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들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장하는 이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이삭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관해 생각해보면서 이삭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3. 이삭의 일생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으며, 자신의 믿음 여정 속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그는 또한 묵묵히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고, 40세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삶의 대부분을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서 보냈다.

성경에는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가정에 시기와 분쟁과 죄와 형제들 간의 이별 등이 생겼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는 137세에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으며 180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혔다. 그는 겸손하고 조용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삭의 삶

1. 평범한 삶을 산 이삭

이삭은 아내 리브가(Rebekah)²³⁾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창24:4)

이삭은 어떤 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룩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들만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야곱이나 모세처럼 자신이 첫눈에 반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 곳으로 종을 보내어 찾아온 여인을 아무런 반대 없이 아내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생을 수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며, 신앙과 삶 속에서 놀랍고 극적인 체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단조롭고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도 찾아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언가 평범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극적이고 놀라운 인생의 체험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다른 외적 상태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양보하는 삶을 산 이삭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은 우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창26:16-25)

이삭이 그랄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백배의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대항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며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우물이라고 요구하고 또다시 이삭은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어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다투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것을 쉽게 포기하면서까지 주위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가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삭의 삶에서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는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3) 브두엘의 딸. 그녀는 메소포타미아의 라반의 누이로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그 뒤 20년이 지나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된 방법은 그 당시 동방의 관습을 잘 보여 준다.-<에스라성경사전>

3. 기도하는 삶을 산 이삭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창25:21)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지 못하자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4. 예배하는 삶을 산 이삭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삭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창26:25)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시켜 주셔서 자신의 삶이 풍족해진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았습니다(창26:22).

이삭의 삶을 볼 때 이삭은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았고, 부모가 제공하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직접 관여하셔서 이삭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도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삭은 하나님께 위대한 소명을 받아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열심히 수고한 것에 백배의 결실을 얻게 하셔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 이삭이 ‘브엘세바’²⁴⁾로 올라간 바로 그 밤에 주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물과 샘(Wells and Springs)

열대 지방 사람들에게 갈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시원한 물을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였기에 우물이나 샘은 필수품이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혹은 ‘목마른 혼을 위한 냉수’ 혹은 ‘생명수의 샘’ 등의 표현이 그곳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들렸으며, 샘을 발견하거나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보통 사막을 오가는 상인들과 또 싸움에 나가는 군대들은 반드시 우물을 찾았으며, 마을들도 대개 우물이나 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삼상29:1; 삼하2:13). 그래서 우물이나 샘을 뜻하는 ‘브엘’이라는 말이 여러 지역의 이름에서 발견된다.

24) 헤브론의 남서쪽 45킬로미터에 있던 도시(창21:31; 26:31-33).

이렇게 우물이 중요하였으므로 우물은 통치자의 지참금이 되기도 하였고(삿1:13-15), 우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으면서 그의 종들이 무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해 그를 책망하고 맹세와 언약을 통해 우물의 소유권을 봉인하였으며(창21:25-31) 이런 일은 이삭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창26:14-33).

이처럼 우물은 생명과 재산 및 각 종족의 힘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우물을 자신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과 깊게 연관을 두었다(창16:14; 민21:17). 참고로 성경에는 이삭이 이렇게 중요한 우물을 7번이나 양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생각해보기-이스마엘(Ishmael)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며, 그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아들(창16:1-16; 21:1-34)이다. 그는 처음에 약속의 아들로 여겨졌으나 이삭의 출생 이후에 17세쯤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광야의 열기와 갈증을 기적을 통해 이겨 내고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고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들이 아랍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는 이삭과 좋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와 함께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137세에 죽었다(창25:9, 17).

한편, 그의 후손인 이스마엘 족속은 모세 당시에 ‘하일라에서 이집트 앞의 수르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곳은 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이다. 그 뒤에 그들과 셈의 4대 손인 욥단의 후손과(창10:26-29)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욥산(창25:3)과 또 욥산과 욥단의 형제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수가 많고 창대하게 되었으며(창17:16) 창16:12의 예언 역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으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 곁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제7과 야곱

성경은 보통 책과는 다르다. 그 안에는 흰색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의 부분도 있다. 따라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의 정직한 행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범하는 실수와 죄악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우리는 아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사실을 보았으며 이제 야곱에게서 동일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인물 연구

1. 야곱은 누구입니까?

-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으로,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창25:24-26).
- ▶야곱은 여성적인 성격으로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 ▶야곱은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습니다.
- ▶후에 집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147세에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2. 중요한 성경구절

- ▶창세기 27장-35장, 46장-49장
- ▶마태복음 22:29-33
- ▶요한복음 4:6-14
- ▶사도행전 7:6-19
- ▶로마서 9:9-13
- ▶히브리서 11:20-21

3. 인물배경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에서의 쌍둥이 형제였으며 태어날 때에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창25:26).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미래에 할 일을 예표로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야곱이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온유하고 평화롭게 목자의 삶을 살았다면, 에서는 거칠고 사나우며 사냥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은 형이 없는 사이에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도망쳤지만(창27:1-46; 28:1-22), 주님께서서는 그의 여정 가운데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 그리고 그의 핏줄을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 주셨다(창28:10 등).

훗날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순례 길의 햇수의 날이 백삼십 년이며, 그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다 했는데, 이는 그의 삶에 참으로 역경이 많았음을 뜻한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었다.

야곱의 삶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갈 당시 대략 1,000킬로미터를 홀로 여행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 20년 동안 수고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라반과 에서의 악한 영을 돌이켜 평안한 여정을 갖게 해주셨다. 또 야곱은 가나안의 경계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 그와 씨름하여 이겼고, 그로부터 복을 얻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역경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야곱이 20년 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죽어서 막벨라의 굴에 묻혀있었고(창24-28; 49:31), 그의 두 아내는 시기와 질투로 야곱의 삶을 힘들게 하였으며, 그의 자녀들 디나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등은 그를 슬픔에 빠지게 하였다.

또한 야곱은 이러한 삶의 역경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보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까지 듣게 되었으며, 막내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덤까지 슬픔을 지고 갈 형편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황혼기 삶은 조용하고 밝았으며, 17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평온한 삶을 누렸고 자기 아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었다. 특별히 그는 그들의 미래를 미리 보았고 유다를 통해서는 실로²⁵⁾ 즉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합쳐졌으며 그의 몸은 향료를 넣어 헤브론 근처의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묻혔다.

☛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그가 여러 차례나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쓴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그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점차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물연구-야곱

1.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둘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인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장성하여 사냥꾼이 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팔죽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하자 야곱은 에서에게 그 조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자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두려움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는 라헬을 사랑하게 되자 그녀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해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꾀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취하고자 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속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 창49:10에서 이 말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야곱은 실로에 대하여 “실로가 오실 때까지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대언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유다의 정부가 끊이지 않을 것을 보여 준다.-<에스라성경사전>

2. 철저한 야곱

20년의 타향살이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야곱은 먼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창32:1-8).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종들과 양, 소, 약대를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방패삼아 에서가 한 떼의 종과 가축들을 쳐 죽이면 자신은 또 다른 한 떼를 데리고 도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 맨 뒤에는 레아와 그녀가 낳은 자녀들을 세우고, 그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녀가 낳은 요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들보다 앞서 나아가 일곱 번을 땅에 몸을 구부리며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인물이었습니다.

3. 기도하는 야곱

야곱의 인간적인 수완은 그의 마음을 결코 평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 있는 에서에게 내일이면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공훈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창32:9-12).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공훈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져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4. 네 이름이 무엇이냐?(창32:24-32)

야곱이 브니엘에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 주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야곱은 ‘야곱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는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야곱은 ‘야곱이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남보다 먼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과거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반드시 얻고야 마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얻는 교훈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떤 성품으로 살아왔

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건들을 통해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욕신과 정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지속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바뀌므로 삶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 브니엘²⁶⁾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창 32:1-2, 28-32; 호12:3)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 즉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고(고전10:18), 남 왕국 유다와 대비되는 북 왕국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권능을 보여 주기 위한 예로 신약성경에 등장하기도 한다(롬9:9-13; 히11:9, 20-21).

야곱은 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자신의 온갖 재능과 꾀를 발휘하여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고, 때로는 남을 속이면서 철저히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피곤하게 살아왔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싸워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더 이상 좋고 나쁜 일에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조급해 하거나 인간적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 성품을 지니게 되었다. 후에 이렇게 변화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종들이나 아내, 자식들보다 앞서 가장 먼저 에서를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생각해보기-장자권(Birthright)

장자권은 맏아들의 특권이다. 히브리 사회에서 맏아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는데, 모세는 일부다처제 하에서 맏아들의 특권을 분명하게 기록했다(신21:15-17). 맏아들은 아버지의 특별 축복(창27:1-46)과 여러 가지 작은 권리와 함께 특별히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었으며(출 13:11-16; 22:29) 제사장의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인 르우벤은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다(창35:22; 49:3-4; 대상5:1-2). 맏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아들이 동일하게 갖는 몫의 두 배를 받았고(신21:17) 또 아버지의 위엄과 권리를 승계했다(대하 21:3). 참고로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롬8:29; 골1:18; 히1:2-6). 즉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지배하시며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26) 이곳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야곱이 이곳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님의 천사(Angel of the Lord)와 씨름하였기 때문이다(창32:30). 이곳은 브누엘이라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주님의 천사는 여호와와 천사를 뜻하며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존재가 구약시대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창16:7-13; 22:11-18; 31:11-13; 32:24-30; 출3:2-6; 23:20; 사2:1-23; 13:16-22; 행7:30-38 등 비교).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 즉 여호와로 구약과 신약 시대 초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수행하였다(사63:9).-<에스라성경사전>

제8과 요셉

요셉(Joseph)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로 야곱이 가나안에 되돌아오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하란에서 태어났다. 그는 야곱이 늙었을 때 얻은 아들이면서 요셉이 사랑한 라헬²⁷⁾의 소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를 이집트의 감옥에서 건져 내어 이집트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섭리를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이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로 참으로 아름다워 줄일 필요도 없고 또 반복해서 읽어도 질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여 준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요셉이란 이름은 “주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주님의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창30:24).

2. 중요한 성경 구절

▶ 창세기 37장-50장

▶ 사도행전 7:9-19

▶ 히브리서 11:21-22

3. 인물배경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약의 족장 가운데서 네 번째로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끝장 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중심인물은 당연히 요셉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요셉에게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편애를 받고 자라면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남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요셉이 이토록 특별한 인물로 부각되어진 이유는 첫째로 그는 선하고 위대한 삶의 좋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요셉만큼 성경 안에서 인격적으로나 경험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27) 라반의 딸(룻4:11)로 레아의 동생이다. 그녀는 레아보다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더 많은 자식을 낳아 위로를 받았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으며 베냐민을 낳은 직후에 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창세기 29-35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베들레헴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그녀의 돌무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에스라성경사전>

인물연구-요셉

1. 꿈꾸는 요셉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창37:7-9) 이 꿈은 아버지와 형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했고 그로 인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며 불만을 품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다른 형들과는 달리 일도 시키지 않자 형들로부터 요셉은 더욱더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고난 받는 요셉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은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창38:28)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결국 미디안 족속의 상인들에 의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아갔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가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곧 요셉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칩니다(창39:9).

●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창39:20)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며, 당당히 물리쳤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것은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명을 씻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비록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자를 범한 파렴치범으로 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형통하게 지켜 주셨습니다(창39:2, 23).

3. 꿈을 해석하는 요셉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함께하게 되고, 이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들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꿈의 해석대로 풀려나게 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셉은 자신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지만, 그는 곧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만 2년이 지난 후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창41:25-36).

그리고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요셉을 기억하고는 파라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소개시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며, 이어지는 7년의 큰 흉년이 있으므로 흉년이 들었을 때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파라오는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올라서게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원대한 꿈을 꾸게 하셨으며,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의 꿈을 통해 나타내시면서, 요셉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으로 때로는 시기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종의 신분이 되기도 하며, 오해를 받아 감옥 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큰 중책을 맡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하고, 그가 젊은 시절에 꾸 꿈처럼 야곱과 형제들에게 둘러서서 경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젊었을 때 그가 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 현 시대에도 요셉과 함께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바라보고, 열린 귀를 가지고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꿈(Dream)

고대 유대인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다. 파라오의 잔 드는 자와 빵 굽는 자의 꿈 이야기는 이런 관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 준다(창40:1-23). 파라오와 느부갓네살도 꿈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꿈을 가져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고 그래서 꿈을 해석하여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이 맞는다 해도 그것들이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신13:1-3).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경우에 꿈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꿈을 꾸 경우 그것을 주님의 대언자들이나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의 해석을 의뢰한 경우도 있다(창20:3-7; 28:12-15; 삼상28:6; 단2:1-49; 마1:20; 행27:23). 초자연적인 꿈은 환상과는 달랐는데 그 이유는 꿈은 자면서 꾸지만 환상은 낮에 깨어 있을 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밤에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계시한 것이 확실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안내자 성경이 주어졌으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에스라성경사전 中>

신약성경은 요셉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9절-19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한 눈에 파악하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스테반, 베드로, 바울의 설교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6-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의 씨가 낫선 땅에 머물 것이고 그들이 그들을 사백 년 동안 악하게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라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참조-창15:13). 또 스테반은 9절에서 19절을 통해 이집트에서의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풀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의 꿈

1.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

	꿈	해몽
잔 맡은 자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포도를 따고 짜서 왕에게 드림	사흘 뒤에 회복
빵 굽는 자	왕을 위해 만든 머리 위 세 개의 바구니 맨 위에 있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을 새들이 먹음	사흘 후에 죽음

2.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

	내용	해몽	대책
첫 번째 꿈	잘생기고 살진 일곱 암소가 풀을 먹고 있을 때 못생기고 야윈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살진 암소를 잡아먹음.	좋은 일곱 암소와 좋은 일곱 이삭은 7년의 풍년이고, 그 후 나온 야윈고 못생긴 일곱 암소와 속이 빈 일곱 이삭은 극심한 7년의 흉년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이집트 땅을 다스리도록 함. ▶ 직무 수행자들을 두서너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 땅의 1/5을 취하도록 함. ▶ 풍년의 기간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 두어 도시들 안에 간직하게 함.
두 번째 꿈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일곱 개가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좋은 이삭들을 삼김.		

제9과 유다

유다(Judah)는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창29:35). 그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명예롭게 등장하기도 하지만(창37:26-27; 44:16-34),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Tamar)과의 사건에서는 명예롭지 못한 모습입니다(창38:1-30). 야곱은 죽으면서 유다 가족의 권능과 번영에 대하여 예언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때까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창49:8-12). 이렇듯 야곱의 자녀 중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었고 유다 지파는 수도 많고 강력하여 가나안의 남동부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유다란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창세기 29:31-35, 38:11-30, 49:3-12 ▶ 민수기 24 : 16-19 ▶ 여호수아 15 : 1-12
▶ 삼하 2 : 1-11 ▶ 마 1:1-17 ▶ 눅 3:23-38 ▶ 히 8:7-13 ▶ 계 5 : 5

3. 인물배경

유다는 레아의 소생으로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다(창29 : 35).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위해 그를 유다 곧 “찬양”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사건에서도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눅1:46-50).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으로 선택된 인물이다. 그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에서는 가장 능숙한 말솜씨로 요셉과 대항하여 형들을 대변하는 대변자였으며 또한 강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인물탐구-유다

1. 유다의 출생(창29:31-35)

유다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두 사람 중 라헬을 사랑하였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레아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결국 라헬과 레아를 포함해서 네 여인을 거느렸던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 중의 하나였다.

2. 유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창38 : 11-30).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였다. 유다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죽은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다말²⁸⁾은 잉태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혹여 유다가 범한 죄악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범했던 일이며, 유다가 그녀를 며느리 다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행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3.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창49:3-12).

창세기 49장을 두 번 정도 읽어보자. 그것은 모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 중 하나이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장래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게 된다. 유다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3:15의 “여자의 씨” 곧 메시아 탄생 예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여자의 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또 유다를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 보다 우월하였으며, 광야의 여정을 인도한 지파였다.

우리는 9절에서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자가 동물의 왕이듯 유다가 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된다. 또한 10절에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는 말씀이 나타 된다. 여기서 “홀”은 왕이나 행정권자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손에 든 막대기 혹은 장식 지팡이를 말하며 그 길이는 1.8미터나 되기도 하는데(창49:10; 민24:17; 예4:11; 5:2; 사14:5; 속10:11), 이러한 홀은 권세의 표징이며, “실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실로” 곧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또 예수님은 장차 홀을 붙잡으시고 당당하게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분이시다.



신약성경은 유다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우리는 마1:1-17과 눅3 : 23-38에서 자세하게 작성된 두 가지 그리스도의 족보를 대하게 되며, 유다는 이곳에서 양쪽의 혈통 안에서 발견되어 진다(마1 : 2-3, 눅3 : 33-34).

2. 히브리서 8장 7-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게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렘31:31-34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는 것으로 그분의 피에 의해 확정된 것이며,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갈4:24; 히7:22; 8:6-13; 9:15-23; 12:24).

28) 엘의 아내 - 유다의 장남인 엘의 아내. 가나안 여자. 엘이 **자식** 없이 죽자 형사취수제(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하여 후사를 낳아 주는 **풍습**)에 따라 시동생 **오난**의 아내가 되었으나 오난 역시 죽고 **막내** 시동생 셀라는 미성년자라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창 38:6-11). 그후 셀라가 장성하여서도 **시부**(媳父)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셀라와의 **혼인**을 기피하자 시부 유다를 속여 그를 통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창 38:12-30). **족보**에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룻 4:12; 대상 2:4; 마 1:3).-<라이프성경사전>

3.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이다. 이분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무찌르신 분이므로 이것은 창49:9에서 유다를 사자로 표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4.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하셨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यो”라는 말씀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지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유다를 선택하셨으며, 유다로 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이 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사역을 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을 택하신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2. 야곱에 의해 선택되어졌던 유다는 죄악의 사람이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요, 육신의 사람들이다.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롬8:28)
3. 그리스도는 유다를 통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유다에게 지키셨던 분이시다.
4. "실로"는 그리스도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이며, 그 이름은 "안식"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 이시다(마11 : 28).
5. 야곱은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 곧 실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다.
6.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막대기이며 그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Branch)²⁹이다.

유다 지파 & 유대

유다 지파는 그들의 영토 경계에 하나님의 성전이 놓인 예루살렘이 있었다. 유다로 부터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이 나왔는데, 결국 구원자 예수님도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유다 지파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전체 히브리 민족을 뜻하면서 유다의 후손 즉 유대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유다는 북 왕국과 대비될 때에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한 남쪽의 왕국을 가리킨다. 유다 지파의 특징은 그들이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의식을 통해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북 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였다.

29) 그리스도는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막대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사11:1; 53:2; 욥3:8; 6:12) 이것은 그분이 다윗 왕의 집에서 나온 왕가의 후손임을 보여 준다(렘23:5; 33:15). 또 가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을 보여 주기도 한다(요15:5-6).-<에스라성경사전>

지도 살피기

유대(Judea)는 유대인들의 땅이며,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구역 중 하나로 주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었으며 예루살렘이 그곳의 중심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의 남부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써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 남동부 지역은 유다 지파의 몫이 되었고 그 뒤 유다 지파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은 좀 더 확장된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으며(삼하5:5) 북 왕국의 열 지파가 떨어져나간 뒤에 유다 왕국은 유대와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과 단의 일부를 포함하여 결국 팔레스타인 남부를 다 차지하였고 팔레스타인의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라 불리게 되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다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유다 혹은 그들의 땅인 유대는 보통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리켰고(학1:1, 14; 2:2) 그 이후에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뒤 로마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정복되었을 때에도 그 땅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로 나뉘게 된 것이다(눅2:4; 요4:3-4).



제10과 모세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으로 부지런한 대언자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 준 것이므로 이집트 냄새가 풍기기도 하며, 요세푸스는 이 이름이 물에서 구출되었다는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모세는 주전 1571년경 레위 지파에 속한 아르람과 요게벳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형과 누이이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지다”는 뜻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출애굽기 1장-24장

▶ 민수기 9장-21장, 32장-34장

▶ 사도행전 7:22-46

▶ 요한복음 3:14-16, 6:31-35

▶ 히브리서 11 : 23-29

3. 인물배경

모세의 삶과 그가 제정한 것들은 크리스천 역사가와 작가에게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그가 제정한 것들은 자유와 순수함과 지혜와 공의와 인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특별히 그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한 고귀한 사랑과 순종을 잘 보여 준다. 그가 제정한 것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품의 틀이 되었고 그들을 변화시켜 유랑하는 목자에서 한 군데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성경을 통하여 그가 제정한 것들은 온 세상에 퍼졌으며 문자가 없는 곳에서는 그 정신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청교도들 역시 이런 정신 하에서 미국을 건설하고 히브리 사람 모세의 정신을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며, 한 마디로 그들의 율법 체계와 유대교 자체의 근간이 모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신구약성경의 여러 구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높은 위치에 두었는지 잘 보여 준다(참조-시103:7; 105:26; 106:16; 사63:12; 램15:1; 단9:11; 마8:4; 요5:45; 9:28; 행7:20, 37; 롬10:5, 19; 히3:1-19; 11:23)

모세의 생애

모세의 생애 120년은 40년씩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첫 번째 사십 년은 그가 태어나서 나일 강에 버려졌다가 파라오의 딸에 의해 구조되어 그녀의 아들이 되어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그는 이집트 왕국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며 말과 행동에서 능한 사람이 되었고(행7:22), 이것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들 특히 이집트 제사장들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40년은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다(행 7:30). 이 기간에 그는 미디안에서 유랑하는 목자로 살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광야 생활에 능숙하게 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의 온갖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유목민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 주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40년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3. 세 번째 40년은 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느보 산에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이 시절에 가장 높으신 이의 대리자로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였다.

모세의 삶

모세는 그가 이루고 행한 모든 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했으며, 성경은 그가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평가를 해주고 있다(민12:3). 당연히 자연인으로서 모세는 보통 사람처럼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민12:3). 실제로 그는 경건함과 겸손함과 참는 것과 행정의 지혜와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심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히 애국심에서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또한 모세의 성품과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는 동안 그들의 구출자, 치리자, 안내자, 증보자, 구원자, 교사, 양육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 점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가 된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제정한 모든 종교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또 모세는 신약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죽은 지 1500년이나 지나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 눈부시게 빛나는 예수님과 가장 영화로운 주제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 곧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눅9:31).

모세의 기도

모세는 모세오경의 기록자였으며 아마도 백성의 공적 기록을 보관한 아론이 그가 기록하는 것을 도왔을 것이다(출17:14; 24:4, 7; 34:27; 민33:1-2; 신31:24). 한편 그는 시편 90:1-17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이것을 기록하였다면 그 안에서 인생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칠십 년이요, 강건하면 팔십 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का?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시편 90:10-12)

준비된 모세

1. 세상적인 실력을 준비한 모세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진 모세를 실질적으로 키운 사람은 모세의 유모이자 어머니 요게벳이었으며(출2:1-10),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손을 통해 자라게 되었고,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던 국가였는데, 이집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라미드와 신전 같은 건축물이 세워졌고, 나일 강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법을 알았으며, 태양력을 만들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와 말을 이용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키워지면서 당대의 학문과 지식, 건축술과 과학 그리고 군사학까지 충실하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영적인 실력을 준비한 모세

모세는 장성했을 때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곧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게 되며(출2:11-12), 이 일이 탄로 나자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출2:14-15). 분명 장성한 모세는 이집트 왕족으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유모 역할을 한 어머니 요게벳으로 부터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로 피신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은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세월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의 시간이 참으로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기간은 광야의 기후와 날씨 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그가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 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의 종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팡이 이야기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자꾸 피해가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고(출4:2-4), 그 지팡이를 통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출4:17).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손오공의 여의봉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단순한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능력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의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상징물이 된 것이며, 이러한 단순한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비록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한 모세

세상적인 실력과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마술사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파라오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시내 산에 도착한 모세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 내용은 참으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보물이 되며,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출19:1-6).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출19:3)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모든 말씀과 율법을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주셨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모세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수많은 대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라는 증언을 받은 인물입니다(신34:10-12).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강제 노동 등으로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는 일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은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기-십계명(Decalogue)

열 가지 명령(출20:3-17)을 뜻하는 이 말은 10을 뜻하는 그리스말 ‘데카’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나온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열 가지 말씀’이라 부른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은혜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십계명의 모든 조항은 첫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양심에 새겨진 도덕 법규’이다.

안식일의 경우 신약 성도들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토요일을 강제적인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한 주에 하루를 거룩히 구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되새긴다는 원리는 현시대도 동일하다. 한편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용하는 십계명은 요세푸스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분한 대로 열 개로 되어 있으나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마리아 숭배로 인해 두 번째 명령을 없애고 대신 열 번째 명령을 둘로 나누어 십계명을 만들어 가르친다.

제11과 아론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르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주전 1574년경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며 모세와 미리암의 형제이고(출6:20),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다. 그는 동생인 모세보다 세 살 많았으며(출7:7),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의 대변인과 조력자로 함께 일했다(출4:16).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아론이란 이름은 “교사 혹은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 출애굽기 4장-17장, 24장, 30장 ▶ 민수기 17장, 20장 ▶ 레위기 8, 9, 10, 16, 17장
▶ 시편 106:8-16 ▶ 히브리서 4:14, 5:4, 7:4-19, 9:1-15

3. 인물배경

아론의 아내는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이며, 그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출6:23). 하나님께서 호렘 근처의 사막으로 아론을 불러내어 모세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83세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자기 동생 모세를 도왔고(출4-16),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훌(Hur)³⁰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으며(출17:1-16),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출24:1-2, 9-11).



인물탐구-아론

아론의 특이성은 그와 그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었으며(출28-29; 레8), 후에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멸망당하고 그의 중재로 인해 재앙이 지속되며 그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일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민16-17). 그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서 신실했으며 희생을 감수했고 자기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레1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대한 죄를 짓기도 했는데, 먼저 그는 모세가 없는 동안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출32:1-22)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였고(민12:1-16) 가데스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민20:7-13).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는 해에 에돔 땅의 경계에 있는 호르 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었다(민

30) 훌은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유명 인사로 르비딤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였고 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함께 백성을 다스렸다(출17:10; 24:14).-<에스라성경사전>

20:22-29; 33:39). 신10:6은 그가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곳은 호르 산의 서쪽 계곡에 있는 장소로서 그가 그곳에서 그 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랍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곳을 매우 중대한 예배 장소로 여기고 있다.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달며 우림과 둠뿤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약성경이 말하는 아론

1.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여 모세의 대변자로 삼으셨으며(출4:14-16; 27-31),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³¹⁾가 되도록 하셔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보낼 것을 말하게 하셨다(출7:1-2).

2.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된 것이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음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지위에 올랐다(출28:1-3).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셨고 그 백성은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예복들을 만들었다.

3. 하나님을 욕되게 한 두 제사장-레위기10장

아론의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번제 헌물 제단에서 영속해서 타는 불로 향을 태우지 않고 보통 쓰는 불로 향을 태우다가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소멸되었다(레10:1-2; 16:12; 민16:46). 바로 이 사건 이후 제사장들에게 성막에서 섬길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그들은 술 취한 채 이런 죄를 짓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며, 그분께서는 자신이 규정하신 것을 요구하시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피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레위기16.17장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속죄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한 대신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죄를 덮는 것에 불과했다. 속죄란 말은 16장에서 16번이나 사용되었다.

우리는 17장에서 희생의 장소인 “제단”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일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임을 자세하게 보여주신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레17:11)

31)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낸 대사 혹은 대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벨은 가인을 위한 대언자였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출7:1)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전하였다.-<에스라성경사전>

5. 아론의 싹난 지팡이-민수기 17장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침해를 받은 후(민16장)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리게 하신 것이다(민17:8).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막대기에 싹이 난 것으로서 부활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가 된다(히9:1-4).

아론과 모세의 범죄-민수기20장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뭄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민20:8).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는 행동을 하였다(민20:11). 이것은 범죄이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민20:12). 우리는 23절부터 아론의 죽음을 보게 되며,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거의 40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하였지만 이후에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고(출6:23; 민20:25-28), 대제사장 직분은 일곱 세대 동안 그의 가족을 통해 계승되었다.

제사장(Priest) 이야기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공적으로 주관하며 특히 속죄를 위해 희생 예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아 죄들로 인하여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다(히5:1). 구약성경을 보면 율법의 수여 이전에는 제사장 직이 어떤 한 가족에게만 귀속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모든 가족과 통치자와 왕의 장자가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도시와 가족 가운데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욥, 아비멜렉, 라반, 이삭과 야곱 등도 스스로 희생 예물을 드렸으며,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였다(출24:5). 그러나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자신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자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집에게 고정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희생물은 오직 그의 후손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었다(민16:40).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 대언자들이 주님께 헌물을 드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리는 일이 고정되기 전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한편 삼상7:9에는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이 주님께 어린양을 바치는 장면도 나온다(삼상9:13; 16:5; 왕상18:31-33 등). 대제사장은 모든 종교 행사의 우두머리였고 그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으며 심지어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정의와 공의 문제도 다루었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 일하였다(신 17:8-12; 19:17; 21:5; 33:8, 10; 겔44:24). 그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속죄를 이루었다(레16:2 등). 그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처녀와 결혼한 사람의 아들이어야 했으며, 신체적인 결점이 없어야 했다(레 21:13). 흠이 있는 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리거나 보여 주는 빵을 바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단지 성막에서 드러지는 희생물로 생활해야 했다(레21:17-22). 한편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았다(민18:28).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진리의 말씀(신약)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위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우림과 둠뭉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은밀한 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심지어 부모의 경우에도 애곡할 수 없었고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 죽은 사람이 있던 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레21:10-12).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섬겼으며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 그 일을 수행하게도 하였다. 또 개인적으로 헌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외하고는 헌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죽였으며, 제사장들은 번제 헌물을 바치는 제단에 영원토록 불을 지켰고 성소의 금 등잔대에 불을 붙였다. 또한 그들은 보여 주는 빵을 반죽해서 굽고 성소의 금 제단에 드렸으며 안식일마다 그것들을 바꾸었다(출28:29; 레8:1-36 비교). 제사장들은 매 주의 시작에 제비를 뽑아서 날마다 낮과 밤에 성소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금 제단 혹은 향 제단에서 향을 드렸다(눅 1:9). 제사장들은 맨 발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와 예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실체요 진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지만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은 영원히 거할 수 없다(히7:1-28). 주님께서는 친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출19:6) 베드로는 이런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벧전2:5, 9; 계1:6 참조). 중대한 영적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를 살아 있는 영적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며 사람 제사장이 있을 수 없다(히 9:11-26). 그러므로 지금도 미사라는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을 두고 있는 천주교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한편 천주교의 사제는 신부(神父)라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로서 우리 주님이 금하고 책망하신 것이다(마23:9).



제12과 여호수아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는 처음에 호세아로 불렸으며(민13:8, 16),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라 불렸다(행7:45; 히4:8). 여호수아(Joshua)와 예수(Jesus)는 둘 다 구원자 혹은 구출자를 뜻한다.³²⁾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여호수아(Joshua)란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출애굽기 17 : 8-16, 24:12-18, 33:11 ▶ 민수기 13, 14, 27장

▶ 여호수아 1-7, 10, 13, 23, 24장 ▶ 사도행전 7:44-46 ▶ 히브리서 4:6-8, 11:30

3. 인물배경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며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칠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언급된다(출17:8-16; 민14:6 참조). 그는 요르단을 건널 때에는 84세였으며 그 뒤 26년 동안 딘낫세라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엄숙하게 당부했으며, 평생 동안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긴 인물이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였고, 하늘에 있는 참된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여호수아의 이름

우리가 여호수아의 출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노예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다(민13:8). 성경 어디에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여호수아의 부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음이 분명하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번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민13:8과 신32:44에서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으며, 히브리서 4:8에선 “예수”로 번역되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느헤미야에서는 “예수아”³³⁾라는 이름도 나타나는데, 예수아는 헬라어화 하면 “예수스”(예수)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예수”가 이름에 있어서 밀접하게 동일시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32) 예수는 히브리말로 여호수아이며 이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33) 여호사닥의 아들로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하나님 경배의 재건을 위해 힘썼다(스4:3; 5:2). 그의 이름은 그 당시의 대언 속에서도 등장한다(학1:1; 2:2; 속3:1-10; 6:11-15).-<에스라성경사전>



모세의 충실한 시종자였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민주적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상황과 역할은 무엇입니까?(출17:8-10)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마감하고 자유인이 된 지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노예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결단력이 없었고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의 지도자로 삼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두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본래 장군 출신이 아니었으며, 모세를 섬기는 자(minister)였습니다(수1:1).

2.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민14:6-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은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매우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매뚜기 같이 보일 거라는 부정적 보고를 하였습니다(민13:25-33).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으리라 원망하자(민14:1-2),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민14:9).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온 백성에게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민14:7-8).

3.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에게 충성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민27:22-23)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뛰어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는 모세를 돕는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였고, 부정적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를 섬기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단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땅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수11:23).

☛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여호수아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에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수24:14)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백성들에게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였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수24:16).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길임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고백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은 여호수아의 신앙고백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힘쓴 사람이었으며, 자신 앞에 있는 세상적인 적들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맞선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골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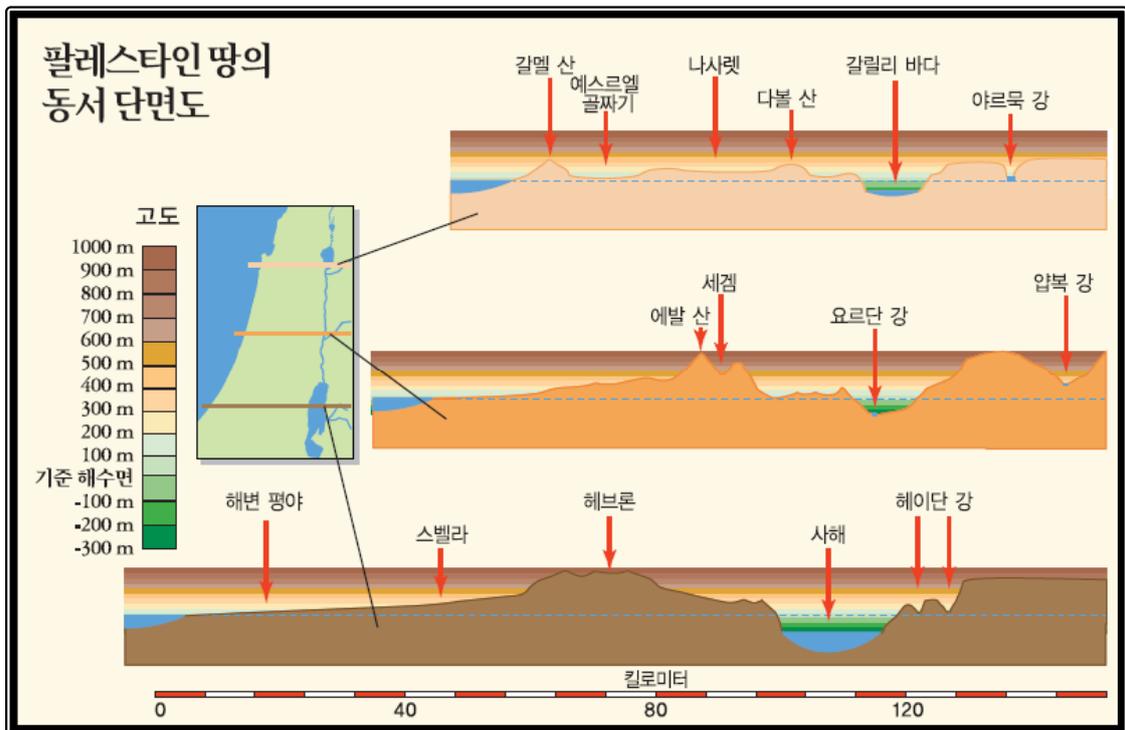
제2바이올린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번스타인은 서슴없이 “제2바이올린입니다. 제1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바이올린이나 제2호른, 제2플루트 등과 같은 악기를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려는 연주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2연주자들이 없다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충성된 지도자이기 전에 충성된 후계자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섬기는 지도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신실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의 땅 분배



팔레스타인 땅의 동서 단면도



제13과 라합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여인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도시가 함락될 때에 자기와 자기 친척들의 목숨을 구하였다(수2:1-21; 6:17-25). 이 일을 하는 동안 그녀가 보여 준 믿음에 대해서는 히11:31; 약2:25에 기록되어 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라합(Rahab)이란 이름은 “거만함”, “격렬함”, “광대함”이라는 뜻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여호수아 2, 6장 ▶ 히브리서 11:31 ▶ 야고보서 2:25

3. 인물배경

어떤 이들 특히 유대인들은 라합이 단지 여관의 여주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녀(Harlot)였다. 그녀는 구원받기 전 회개하고 자기의 악한 행실에서 떠났으며, 주님을 구원자로 삼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며 유다 지파(支派)의 통치자인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룻4:21; 마1:4).

본래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으며, 그녀의 부모와 형제자매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던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생명을 건지게 된 그녀의 가족들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라합은 자신과 관계된 자들을 여호수아 2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다.³⁴⁾

믿음을 고백한 라합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수 2:10-11)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창녀 노릇을 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명의 왕 시혼과 옥을 진멸한 일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수2:10). 또 라합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알았기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쳐들어 올 것으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두려움이 임

34) 참고로 시87:4; 89:10, 사30:7; 51:9에 나타난 라합은 이과에서 배우려는 라합과 동일 인물이 아니며, 이곳의 라합은 이집트를 나타내는 말로 곧 교만과 무례함을 뜻하며(시87:4; 89:10; 사51:9) 마지막 구절에서 이집트는 사악한 짐승 곧 용으로 표현되었습니다.-<에스라성경사전>

하였고, 이들이 기력을 잃었다 이야기했습니다(수2:9). 아마도 라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의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자신이 알며(수2:9),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도 하였습니다(수2:11).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 없이 소문으로만 듣고 믿은 믿음이었습니다(요20:29, 롬10:17). 하지만 라합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생명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주게 됩니다(수6:25). 또한 그녀는 창녀에서 신분이 바뀌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마1:5).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라합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히11:31).

당시 여리고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일은 라합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녀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약2:25). 당연히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온 라합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구원 받은 라합이 그녀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의롭게 됨 즉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의롭게 됨을 이야기 합니다.³⁵⁾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라합

구원 받은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Boaz)”를 낳게 됩니다(마1:5).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사람이며(룻2:1), 유대인들의 왕의 직계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마1:5).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을 보면 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없는데, 그는 룻과 결혼을 하면서 다윗의 조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살몬/라합--> 보아스/룻--> 오벧--> 이새--> 다윗”

35) 사랑침례교회 <야고보서강해 제5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라합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며, 그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한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라합은 이방인에다가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을 찾은 두 정탐꾼

두 정탐꾼은 왜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아마도 당시에는 창녀의 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주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를 살피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또 고을의 성벽 위에 위치한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에 적당한 장소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수2:15).

이렇게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각되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그들은 급히 탈출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옛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가나안의 온 땅을 주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곳의 모든 거주민이 기진해 있다는 긍정적이고 담대한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수2:24).

신약성경이 말하는 라합

라합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확실히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with them that believed not)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11:31)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³⁶⁾

라합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 “평안히”라는 말을 볼 때,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참고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라합” 이 두 사람뿐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을 찬양하면서 그녀가 “창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비록 라합이 이방 여인이면서 창녀였을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으며, 자신이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으며, 라합은 하나님으로 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36) 개역성경은 잘못된 카톨릭 본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KJB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with them that believed not(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로 번역했으며, 다른 영어성경들도(NIV,RSV,ASV....) 이것을 “반항하는” 또는 “거역하는”이라는 의미의 “disobedien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믿음이 아닌 순종하는 일 즉 행위와 연관시켜 나감을 볼 수 있다.-편집주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으신데, 우리는 여기에 부응해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라합은 십자가, 예수님, 어린양 등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려온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라합에게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³⁷⁾

세리와 창녀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반갑게 맞이하셨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180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에 따라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반면에 도덕을 지킨다고 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경멸한 세리(Publican)들은 말 그대로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극도로 미워하였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으며 세금 바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신17:15), 자기 민족 중에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교도로 취급하였다(마18:17).

우리 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에는 세리가 많이 있었다.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불리므로 아마도 부관들을 거느린 주요 세금 징수자였을 것이다(눅19:2). 그러나 마태는 부관 노릇을 하는 세리였다(눅5:27).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이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였지만(눅7:34)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불신과 위선을 아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마21:31). 또 눅18:10-14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창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여인(잠29:3)과 우상숭배 하는 민족들 그리고 도시들을 상징하기도 한다(사1:21; 겔16:1-63; 나3:4). 유대인 사회에서 창녀들은 대개 이방인이었으며 그래서 많은 경우 ‘낯선 여인’이라 표현되기도 하였다. 창녀들은 종종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에 몰두하였고 가증한 것을 만들기도 하였으며(민25:1-5; 호4:14), 하나님의 집이 더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표현된 남창(男娼)의 몸값을 헌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도 제정되었다(신23:18).



37) 사랑침례교회 <히브리서강해 제25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4과 기드온

기드온(Gideon)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재판관으로 므낫세에 속한 재판관이며, 특히 동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스렸다. 그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그리심 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브라에 살았으며(삿 6:11),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재판관으로 40년을 사역하였다(삿 8:28).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기드온(Gideon)은 “조각내는 자”라는 뜻으로 다른 이름은 “여룹바알”이다(삿6:31-32).

2. 중요한 성경 구절

▶사사기 6장-8장

3. 인물배경

가. 기드온은 악탈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다가 주의 천사로 부터 부름을 받았다(삿6:12). 그는 주의 천사에게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 달라 하였고, 이런 사실은 바위 위에 올려놓은 희생물이 초자연적인 불로 살라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삿6:17-23). 이에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살롬”³⁸⁾이라 불렀으며(삿6:24), 그 밤에 자기 종들 중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의 작은 숲을 베어 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은 “여룹바알” 곧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삿6:25-32). 후에 이 이름은 ‘우상과 논쟁하는 자’란 뜻의 “여룹베셋”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였다(삼하11:21).

나. 기드온은 요르단의 동쪽 오브라에 살았는데 수확할 때가 되면 유랑하던 부족들이 이 지역의 동쪽으로 침범해 들어왔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표적들로 격려를 받은 뒤 미디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에 자기를 돕지 않은 숙곳과 브누엘에게 형벌을 가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를 진정시키며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성공적인 재판관의 자질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는 금으로 만든 에봇(Ephod)으로 인하여 죄와 올무에 빠졌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기념하기 위한 이 옷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삿 8:35; 삼상12:11; 히11:32).

38) “평강의 여호와”라는 뜻으로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곳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붙인 이름이다(삿6:24).-<에스라성경사전>



소명을 받는 기드온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우상 신들을 섬기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지배 했으며 그들은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중의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 기드온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들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삿6:1-6)
2. 주의 천사(angel of the LORD)³⁹⁾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삿6:11)
3. 주의 천사는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삿6:12)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의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산 속에서 굴을 파고 지냈으며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천사가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기드온은 수확한 밀을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기드온과 아래와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삿6:12-16).

▶ 주의 천사: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 기드온: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중략)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 주의 천사: 너는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 기드온: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나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 주의 천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39) 이것은 여호와와 천사를 뜻하며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존재가 구약시대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창16:7-13; 22:11-18; 31:11-13; 32:24-30; 출3:2-6; 23:20; 삿2:1-23; 13:16-22; 행7:30-38 등 비교).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 즉 여호와로 구약과 신약시대 초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수행하였다(사63:9).-<에스라성경사전>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큰 용사로 삼아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작은 능부가 큰 용사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귀하게 쓰시는 줄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려거든 분명한 표적을 통해 확증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해주시며, 한 번은 타작마당에 놓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였고, 또 한 번은 양털은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도록 하셨습니다(삿6:36-40).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여룹바알 곧 기드온과 함께한 온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하룻의 샘 옆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 스스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범죄 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고, 백성 중에서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명의 남은 자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들 300명을 선별해서 남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각각 그 사람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삿7:18).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300명이 되었고, 세 무리로 나뉜 300명의 용사들에게는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등불이 들어있는 빈 항아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군대의 진영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등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부르짖고, 자신들끼리 칼로 공격하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그들을 추격해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의 두 통치자를 사로잡아 죽이게 됩니다(삿7:1-25).

- ▶ 최종적으로 기드온이 모은 군사의 수는 몇 명입니까?(삿7:7)
- ▶ 기드온의 300용사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삿7:16)
- ▶ 적은 군사와 보잘 것 없는 무기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삿7:2)

미디안 족속(Midianites)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의 후손들로 아라비아에 거하던 유목민이다. 그들은 수가 많고 양과 소와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사60:6), 미디안 족속이 원래 거하던 곳은 홍해 남단이었다(행7:29). 하지만 후에 그들은 세일 산의 동쪽 사막을 따라 북쪽으로도 퍼져 나가, 모압 족속의 경계에까지 이르렀고 다른 쪽으로는 시내 산에 이르는 지역까지 뻗어나갔다(출3:1; 18:1; 민22, 25, 31; 삿6-8). 창25:2-4와 창25:12-18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이스마엘 자손과 구분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두 민족이 같이 나오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창37:25,

36 비교). 그들의 수도는 미디안이었으며 그곳은 아르시의 남단에 있던 아르논에 있었다. 미디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였으므로 종종 이스라엘을 부추겨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히브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심히 학대하기도 하였다(민22:1-41; 25:1-18; 31:1-54).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려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 즉 동쪽의 사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큰 떼를 이루고 와서 열매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곤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도 지도력도 기력도 없어서 산굴로 피신하곤 하였으며 바로 이때 기드온이 나타나 그들을 구출한 것이다(삿6:7).

전쟁 후 모습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자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삿8:23)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의 탈취물 중 귀고리, 목걸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 등을 가지고 에봇⁴⁰⁾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⁴¹⁾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은 오브라에 가서 에봇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게 되므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일은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삿8:24-27).

이제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기드온 시대에는 40년 동안 평온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매우 나이가 많아 죽었고,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 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않게 됩니다(삿8:2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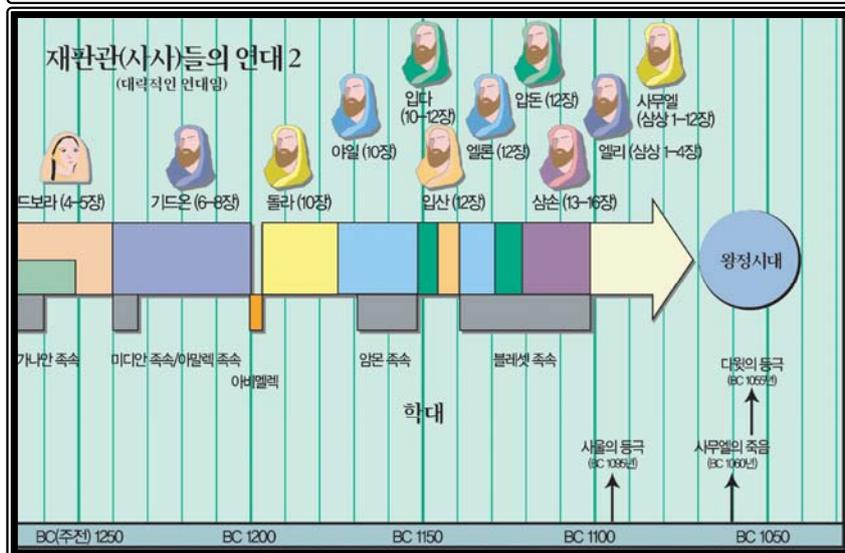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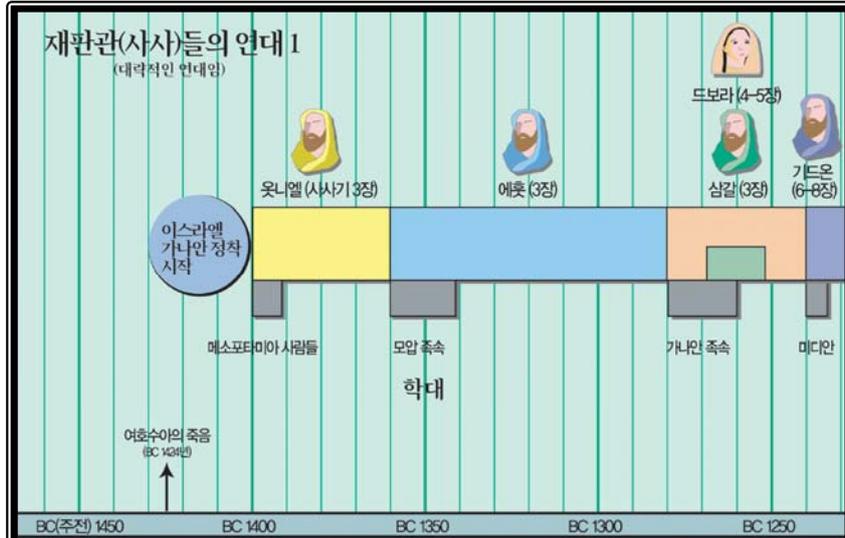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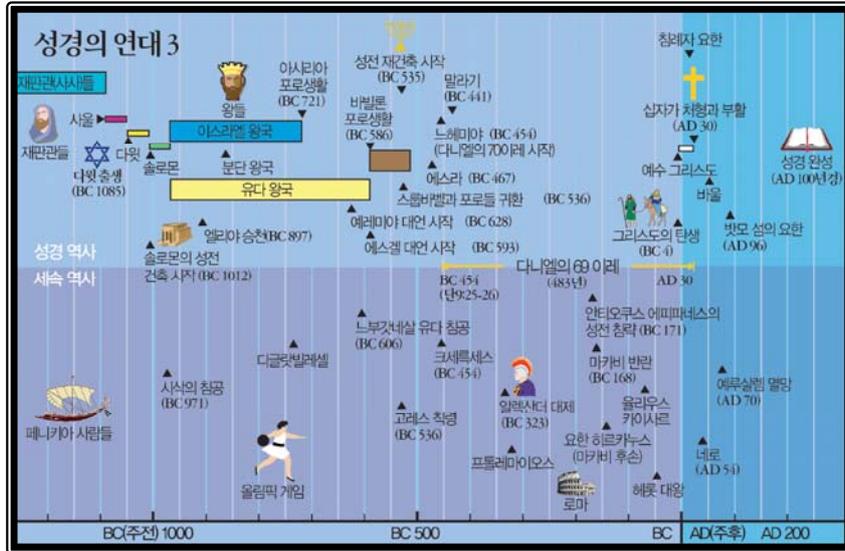
작은 자 vs 큰 용사

우리는 ‘작은 자’일까요? 아니면 ‘큰 용사’일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은 작은 자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닌 ‘큰 용사’임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40) 히브리 제사장이 입던 장식 옷으로 이것은 소매가 없이 두 조각으로 되어 한 조각은 몸의 앞부분을 다른 조각은 뒷부분을 가렸으며 제사장은 속옷과 겹옷 위에 이것을 입었다. 유대인들은 이 옷에 대해 어떤 미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상숭배에도 이것을 사용했다. 기드온의 에봇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고 미가 역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우상이 경배를 받게 하였다(삿8:27; 17:5; 18:17).-<에스라성경사전>

41) 므낫세의 마을로 기드온은 여기 거하였으며 그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의 에봇을 숭배하였다(삿6:11-24; 8:27).-<에스라성경사전>

성경의 연대와 재판관들의 연대



제15과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판관 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으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받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였으며 무엇보다 깨끗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 사무엘(Samuel)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지명하심”이란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사무엘상 1-10장, 16장, 19장

▶ 역대상 9:22, 26:28, 29:29

▶ 사도행전 3:24, 13:20

▶ 히브리서 11:32-34

3. 인물배경

사무엘은 기도의 아들로써 히브리 대언자들과 재판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이다(삼상1:20; 행3:24; 13:20). 그는 나면서부터 레위 사람이었고(대상6:22-28), 예루살렘 북서쪽 에브라임 산의 라마에 살던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주 어릴 때에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 엘리의 보호를 받으며 성막 옆에서 자랐으며, 나면서부터 주님께로 구분되어 나사르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삼상3:1-21),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 중 마지막 재판관으로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 되었다. 또한 사무엘이 성장하여 중대한 책임을 맡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들의 멍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공정하게 공의를 집행하면서 교육과 참된 신앙심을 강조하였고, 지파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삼상1:10-11)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쉽스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삼상12:23)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Hannah)⁴²⁾는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사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으로(삼상3:10)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삼상7:5; 12:23; 15:11). 또한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삼상7장). 그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처리했으며, 특히 미스바⁴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삼상7:10; 17:47).



깨끗한 지도자 사무엘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삼상 12:3)

사무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임하면서 항상 사적인 욕심 없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물질이나 돈에 있어서도 깨끗한 생활과 마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대언자,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고, 왕을 갈아 치울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삼상7:15-17),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으며, 특히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삼상7:14).



레위인 그리고 나사르 사람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레위인이며, 나사르 사람(Nazarite)입니다(삼상1:1, 1:11). 그는 라마다임소빔(RamathaimZuphim)⁴⁴⁾에서 태어났는데, 소빔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42) 라마다임소빔의 레위 사람 엘가나의 경건한 부인.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으며 그를 얻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자기의 서약에 따라 그를 하나님에게 거저 드렸다. 그녀는 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추가로 얻는 복을 받았다(삼상1:1-28; 2:1-21).-<에스라성경사전>

43) 이곳은 베냐민의 도시로 라마 근처에 있었으며 재판관들의 시대에 지파들이 모이던 중심지였다(수 18:26; 삿20:1, 3; 21:1). 여기서 사무엘은 희생물을 드리고 재판하였으며 사울은 여기서 왕으로 지정을 받았다(삼상7:5-16; 10:17).-<에스라성경사전>

44) ‘소빔의 두 언덕’, ‘두 배나 높은 파수꾼의 땅’이란 뜻. 사무엘의 조상 ‘슽’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된다(대상 6:26). 이런 측면에서는 ‘슽 땅에 속한 라마’로 볼 수도 있다.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며 사무엘이 죽어 묻힌 곳이기도 하다(삼상 1:1).-<라이프성경사전>

또한 사무엘은 서원한 나사르 사람이었습니다(삼상1:11).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은 사무엘을 나사르 사람으로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나사르 사람은 고대 히브리 율법 하에서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나 모든 종류의 포도 생산물을 섭취하지 않기로 서원한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았으며 혹시 자기들 앞에서 우연히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록히 구별한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 같이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는 언약은 여드레나 한 달이나 혹은 평생토록 지속되었는데, 나사르 사람의 서원이 끝나는 때에 당사자는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태웠으며 그 후에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민6:1-27; 암2:11-12). 영원히 나사르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대개 사무엘의 경우처럼 부모가 출생 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삼상1:11). 그들은 이런 상태로 평생을 지내며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았는데, 삼손과 침례자 요한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삿13:4-5; 눅1:15; 7:33).



사무엘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

사무엘은 자신의 맏아들 바스니와 둘째 아들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임명했으나 그들의 부패와 부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삼상8:1-5).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호13:11).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임명하고 후에는 다윗을 임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좋은 일을 하였으며 특히 사울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대언자들의 학교⁴⁵⁾를 세워서 이것들이 오랫동안 좋은 역할을 하게 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애도를 받으며 98세의 높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1.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잠22:6; 사48:17).
2. 사무엘과 같이 바른 믿음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3.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45) 사무엘 당시에는 기브아, 나웃, 벵엘, 길갈, 여리고 등지에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경배하는 일을 안내하는 것을 준비하였다(삼상10:5; 19:20; 왕하2:3, 5; 4:38). 여기서 교육을 받은 대언자들의 아들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영감을 받은 대언자가 되었다. 단 아모스의 경우는 예외이다(암7:14-15).-<에스라성경사전>



믿음의 사람-한나

한나는 라마다임소빔의 레위 사람 엘가나의 경건한 부인으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중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의 젖을 떼는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나사르 사람으로 바치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린 아이를 떼어 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사 사무엘 이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추가로 주시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삼상1:1-28; 2:1-21).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삼상1:27-28).

한나의 기도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경배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음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삼상2:1-10).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이 기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므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삼상2:1-2)

(중략)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삼상2:6-10)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남부 해안에 거주하던 유명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명칭은 블레셋(Philistia, 시60:8; 108:9,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래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왕과 도시를 소유한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창20:2; 21:32; 출13:17).

재판관들의 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시대 초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왕과 영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의 통치 시절에 근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삼갈, 삼손, 사무엘, 사울은 그들을 치고 살육하였으나 완전히 그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삿3:14; 삼상4:1-22; 7:1-17; 14:1-52; 31:1-13).

제16과 사울

사울은 최초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던 시기에 자신의 아버지 기스(Kish)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기브아(Gibeah)⁴⁶에 수도를 정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왕국의 기초를 쌓았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 사울(Saul)은 “요청함” 혹은 “요구함”이란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사무엘상 8-31장

▶ 역대상 10장

▶ 사도행전 13:21

3. 인물배경

사울(Saul)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초대 왕이 되었고, 40년간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통치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다. 그는 평생토록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무엘기상 10-31장에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슬픈 이야기이며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그의 통치 초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빛났으나(삼상9:20; 10:1-25), 그는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였고 왕가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드러났으며 그의 죄들과 그로 인한 재앙이 늘어나면서 그의 권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성품들

1.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자기 아들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삼상9:3). 이에 사울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9장 4절을 통해 사울이 땅을 “두루다녔다”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말은 바

46) 기브아는 베냐민의 도시(삼상13:15)로 사울의 출생지요 거주지였고 종종 ‘사울의 기브아’라 불렀다(삼상11:4; 15:34; 23:19; 26:1; 삼하21:6; 사10:29). 기브아는 또한 사악한 죄로 인해 유명했으며 특히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간 젊은 레위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고 죽이는 일로 악명을 떨쳤고, 이 일로 인해 전쟁이 생겨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빠졌다(삿19:1-30). 성경은 이에 대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고 기록한다(삿21:25).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에스라성경사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삼상9:5).

2.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사울이 아랫사람의 말에도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삼상9:6-10).

3.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잃은 나귀들에 대해 생각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사울과 사울의 아버지의 온 집에게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하게 반응하며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삼상9:21)



대언을 하는 사울

사무엘은 주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음을 알았기에, 기름 한 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삼상10:1).

그리고 사무엘은 몇 가지 표적들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중의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께서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삼상10:2-6). 이에 사울은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대언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대언을 하게 됩니다(삼상10:10-13).

참고로 사울은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삼상8:4, 9:1-10:1),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며(삼상10:17-24), 길갈에서 왕으로 취임했습니다(삼상11:5).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해버린 사울

사울은 가장 먼저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사무엘이 없을 때에는 사무엘 대신 희생 예물을 바침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다. 또 그는 성급하게 맹세하여 백성을 곤경에 몰아넣었으며,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을 이기기도 하였지만, 아각과 짐승들을 살려 두는 죄를 범하였고, 영이 피폐해져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부터는 심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실제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었다(삼상18:10-11).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인력을 동원해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급기야는 늪에서 제사장 무리를 다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또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며 죽기 전에는 엔돌⁴⁷⁾에서 무당에게 물어 보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끊고 말았다(삼상31:1-13;

47) 엔돌은 므낫세의 도시(수17:11)로 다불 산에서 6.5킬로미터 떨어진 나인 근처에 있었다(시83:9-10). 사울 왕은 말년에 다급해서 여기로 가서 마녀를 찾았는데(삼상28:1-25) 이때에 그녀는 사울을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 그로 인해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

삼하1:1-27; 대상10:13-14).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 사울의 무서운 종말은 어느 면에서 그들이 주님 대신 다른 왕을 구한 결과였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14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께 범한 범법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기록해 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자리이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그가 패망자가 된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울은 역사 속에서 결국 교만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

왕(king)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왕(king)들이 언제나 큰 위엄과 큰 왕토를 지닌 것만은 아니다. 성경은 조그만 마을과 부락도 왕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면서,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도 왕으로 기록한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신33:5), 물론 그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니었고 지도자 혹은 우두머리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나안 지방같이 작은 곳에 31명의 왕이 있었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수12:9-24). 물론 이 숫자는 여호수아의 손을 피해 달아난 다른 왕들은 제외한 것이다. 아도니벡세은 자기가 70명의 왕을 붙잡아 그들의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말한다(삿1:5-7). 이런 왕들은 현재 아랍 부족들의 족장들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때까지 왕이 없었다. 처음에 이집트에서는 장로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같이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그 후에는 웃니엘, 삼손, 입다 같은 재판관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들이 다스렸다. 그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의 정부는 신정 통치 체제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의 치리자를 정해 주셨으며 백성은 주님 안에서 이들의 말과 법을 따라야 했다. 또한 의심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우두머리인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요 법을 주는 이시요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의 행위였다(삼상8: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주셨으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간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이다.

그들은 왕정 하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법규로 삼았으며, 대언자나 대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의 손에 활을 쥐어 주었다(신17:15-20; 삼상10:1; 12:12-15; 삼하1:14, 21; 왕상1:39; 왕하9:1-6; 11:2-12; 시21:3).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므로 하나님은 백성이 필요로 하는 공적 일에 대한 지침을 왕에게 주셨으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항상 형통하였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신인가?⁴⁸⁾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혹은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등에 있는 성령님(the Spirit)은 구약성경에 28회나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신’(god)으로 번역하여 구약에서 성령님을 제거했다.

개역: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흠정역: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창1:2).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god of God’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아마 유니테리언 교도들만이 이런 번역을 취할 것이다. 구약의 ‘the Spirit’이 바로 신약의 ‘the Spirit’ 즉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속에서 형성된 그 당시의 보편적 사고 체계에 따라 소위 신이 내린다는 강신(降神)의 무속신앙 개념으로 성경의 ‘성령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개역: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삼상10:10)

개역: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삿6:34)

따라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신’은 틀리며 ‘성령’이 맞는다. 한편 신약성경에서 개역성경은 성령에 관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개역: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빌 1:19)

이런 구절은 다 ‘the Spirit of Christ’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번역자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흠정역: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마22:29).

이렇듯 성령님(Holy Ghost)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본질에서, 능력에서, 존재 면에서 동등하며 아버지나 아들에게서 배출된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경우에 한해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제자들에게 보내어졌다(요14:26; 15:26). 이분은 아버지의 영이며(마10:20; 고전2:11)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갈4:6; 빌 1:19).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분은 스스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인격체이다. 이분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기뻐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수 없으며 또 말씀하거나 위로하거나 중보하거나 자신의 선물(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물론 그리스말이나 영어에서 이분은 남성을 가리키는 he로 표현되어 있다. 성령님께서 신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다른 두 분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

48) 출처-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196

제17과 요나단

성경에는 좋은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멋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했던 다윗의 진정한 친구⁴⁹⁾였습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 요나단(Jonathan)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란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사무엘상 13-14, 18-20, 23, 31장

▶ 사무엘하 1, 9장

3. 인물배경

요나단은 구약에서 가장 사랑스런 인물 중 하나이다. 므마스⁵⁰⁾에서의 그의 용감한 이야기는 그의 믿음과 용맹을 잘 보여 준다(삼상13:1-23; 14:1-52). 백성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 따라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였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신의 혼처럼 사랑하였고(삼상18:1-4; 19:2; 20:1-42), 비록 자기 친구가 왕좌를 차지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자기 친구를 위해 수고하며 자기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다.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의 시는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친구에 대한 사랑과 애뜻한 마음을 담고 있다(삼하1:1-27). 후에 다윗은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삼하9:1-13). 또한 요나단은 사울왕의 가장 큰 아들로써 사무엘상 14장 49-51절에서 그의 배경이 나타나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며 요나단에게는 두 형제와 두 자매가 있었다. 요나단의 가정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였다.

▶ 요나단은 훌륭한 정신적 능력과 높고 고상한 도덕성과 순수한 체격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적합한 자였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왕의 범죄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없었으며,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14절과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8절에서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49)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명예를 얻었다(사41:8; 약2:23).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출33:11).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일 것이다(삼상18: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명예와 복을 주셨다(요15:15). 그분께서는 유다를 가리켜서도 친구라고 하셨지만(마26:50)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동반한 무리를 뜻하며 그것은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는 다르다(마20:13; 22:12 참조).

50) 베냐민의 마을로 이곳은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 1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느7:31; 11:31). 이곳은 큰 계곡의 북쪽에 위치한 성이었으며 그래서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기서 자신의 무거운 장비를 버려두었다(사10:28-29). 이 깊은 계곡에는 두 개의 높은 바위 언덕이 있었다.



요나단 그리고 다윗

1. 서로를 아끼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했으며, 다윗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쌓여서 그들은 참된 우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에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인물됨을 알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윗에게 내어주었고(삼상18:4),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변호를 하였습니다(삼상19:5). 또한 다윗도 요나단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게 자신을 사랑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컸으면 친구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다윗은 고백하였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음을 알았고(삼상19:5), 무엇보다 요나단이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삼상20:17).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삼상18:1)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삼상18:3)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삼상20:7)

“내 형제 요나단아,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네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네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삼하1:26)

2.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관계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서로의 신뢰를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끝까지 자기 집을 돌보아줄 것과 신의를 저버리지 말 것을 거듭 언약합니다. 우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친구끼리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서로 믿지 못하면 우정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끝까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이에 따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⁵¹⁾을 돌보아줍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 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네 친절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삼상20:15-16)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숲에 머물며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삼상23:18)

3.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은 친구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데서 절정

51) 요나단의 아들. 그는 므립바알이라고도 불렸다(대상8:34). 므비보셋은 그의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에 아주 어렸으며(삼하4:4)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의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떠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그는 평생 동안 자리를 절었다.

에 이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으며,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를 찾아와서 격려할 만큼 요나단의 도움은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가 어려울 때 찾아가 주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듭 확인해주며, 자신은 이인자로 남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곧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그의 일생을 돌보아주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하면 많은 친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는 분명 우리를 찾아와 격려해 줄 것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진정한 친구만이 마음의 위로와 정신적인 용기 그리고 물질의 도움을 베풁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급히 달려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임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이며,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요15:14-15)

☛ 마제스티 찬송가(Majesty Hymal)에 나오는 찬송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곡들을 추천합니다. 다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 추천곡1- 위에 계신 나의 친구(72장)/ 이 세상의 친구들(360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399장)

▣ 추천곡2- 나 진실한 친구 찾았네(546장)

1절) 나 진실한 친구 찾았네/ 변치않는 그 사랑/ 나 항상 즐거이 말하리/ 날 구해준 주의 은혜
 2절) 이 친구 내 영혼 지키며/ 죄에서 날 구하네/ 나 주의 팔 항상 의지해/ 나 항상 주만 따르리
 3절) 나 홀로 큰 고통 당할 때/ 주님 음성 들리네/ 내게 오라 너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리라
 후렴) 주가 날 구했네 새 생명 주셨네/ 온전한 기쁨과 생명을 주셨네/ 주 예수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삼상17장), 사울왕은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58절에서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처럼 대답하고 난 뒤에 요나단의 혼은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삼상18:1)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순결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우정관계는 지금까지도 모든 진실한 우정들 중에 가장 완벽한 모범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긴 겂옷과 옷와 칼과 활과 띠를 곧 왕이 될 다윗에게 건넨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삼상18:4).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 된 왕이었기에(삼상 16:1), 그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봉인과도 같이 진실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사무엘의 밑에서 훈련을 받아왔기에, 그는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능력자 곧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고 예비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요 왕권의 상속자였지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겸손히 내려놓고 다윗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비우셨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잠27:17)

“속지 말라.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고전15:33)

속담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빛나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좋은 친구를 잘 선택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무명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신분을 초월해서 다윗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거나 한 사람이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18과 다윗

다윗(David)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의 막내아들로 주전 1085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세속 역사나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왕좌에 오르기 전 대언자 사무엘의 의해 거룩히 구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삼상16:1-13).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랜 동안 역경과 위험을 잘 이겨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다윗(David)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삼상16-31장 ▶삼하 전체 ▶대상15.25장 ▶왕상1.2장
- ▶마1:1, 22:41-45 ▶막11:10 ▶눅1:32

3. 인물배경

다윗은 젊을 때 목동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았고, 음악 하는 자로서 행동이 곧바르고 단정하여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 왕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때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울 왕을 위로하고 그에게 맑은 정신을 갖게 해 주었으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을 무렵 왕의 궁에서 나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방문하여 용맹스럽게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을 죽였고 그 뒤 왕에게로 돌아와 명예를 받고 군대를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동하여 백성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인해 그는 유다의 광야로 피신했고 거기서 600여 명의 무리를 얻어 그들을 지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받았으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들어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 후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서 아기스의 영접을 받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자기 땅으로 돌아와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 헤브론에서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7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뒤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조를 설립했으며 그의 가문은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부름 받은 모든 일에서 책임 있게 행동했으며, 하나님의 궤를 명예롭고 기쁘게 거룩한 도시로 가져와서 정성을 다해 경배 드리는 규례들을 수정하였다. 또 그는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며 민족의 번영을 추구했으며, 다윗은 용사였으므로 외세의 침입을 막고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 너머에까지 왕국의 영토를 확장해서 홍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까지 이르게 했다(창15:18; 수1:3-4). 또한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백성을 부유하게 하였으며 자기 아들 솔로몬이 만들게 될 성전을 위해 많은 물건들을 예비하였다.

다윗의 삶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전성시대를 이룩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1.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까지도 외적인 모습이 뛰어난 다윗의 가장 큰 형 엘리압⁵²⁾이 왕으로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부모에게까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왕을 선택하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소외당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외시킨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삼상16:7).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행13:21-22).

2.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3.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다윗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며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어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신 때에 자신의 평안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curtain)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삼하7:1-2). 이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대상29:3).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곧 실행에 옮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과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대상29:2-5). 이것을 본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다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들이 준비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52) 엘리압은 막내 동생 다윗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보였는데 이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잘 보여 준다(삼상16:6-7; 17:28).-<에스라성경사전>

신약성경이 말하는 다윗

신약성경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5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다윗과 우리 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the son of David)이시다(마1:1).
- (2)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42대가 된다(마1:17).
- (3)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신다(마9:27, 12:23, 15:22, 20:30-31, 21:9).
- (4)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행13:22-23) 명확한 빛을 비취준다(롬1:3).
- (5)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무찌르신 유다 지파의 사자(lion)이시다(계5:5).
- (6) 예수님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라고 말씀하신다(계22:16).
- (7) 다윗은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대언하였다(행2:25-31).

다윗에 대한 평가

다윗 역시 번영과 무제한의 권력으로 인한 비도덕적 영향들을 다 피하지는 못했으며, 여러 가지 강한 유혹에 말려들어갔다. 비록 그의 삶 전체가 그를 둘러싼 다른 왕들에 비해 흠이 적고 훌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죄들에 빠졌다. 그는 당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아내들을 두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으며, 우리야와 밧세바 사건에서 드러난 그의 죄는 정말로 사악한 것이었지만 그는 어리석은 꿈에서 빠져나와 먼지와 재속에서 회개하고 책망과 형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 그 이후 그는 여러 번 고통을 당하며 겸손해지고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물고 뜯는 일과 근친상간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은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았으며, 압살롬과 세바와 아도니아의 반역과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기근과 재앙 그리고 요압의 범죄 등으로 인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시55: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경은 좋은 열매를 가져왔으며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는 자신의 성실함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요압과 시므이에 관해 그가 솔로몬에게 책무를 준 것은 공의를 담은 목소리였으며 결코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왕상2:5-9).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것을 예비했으며 백성을 불러 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였고 40년간 통치하다가 71세에 죽었다. 다윗은 정신적으로도 능력이 탁월하여 살면서 많은 것을 습득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친절하고 관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행동하였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산 인물이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는데, 그가 정복하여 세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가 되었고 사실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 속에는 그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다. 특별히 시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는데, 비록 다윗이 베들레헴의 골짜기와 시온의 언덕에서 히브리말로 시편을 지었지만 그것들은 후에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인내를 주었다. 이렇듯 성경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친 민족 신앙의 산 증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투쟁을 반영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의심에서 확신에 이르게 하는 여정을 보여 주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 준다. 다윗은 이러한 시편을 성전에서의 경배 의식에 도입하면서 이전의 의식을 더욱 보강시켰고, 역사적으로 다윗의 시편은 예배의 필수 요소임이 입증되어서 전 세계 성도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할 때 시편의 도움을 받아왔다.

결론적으로 시편은 간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풍부하게 해 주며 근본적인 헌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찬송이다. 사실 시편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찬송은 없을 것이다. 이 귀중한 노래들은 하나님 즉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온 우주의 치리자에 대한 장엄한 생각을 담고 있으며 어떤 시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인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시인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피곤하고 지친 내 몸을 쉬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며 원수의 대적에서 보호해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19과 솔로몬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여, 그것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음을 기록한다(마6:33). 그래서 그의 지혜와 명철은 동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복도 풍성하게 받은 것이다. 또한 그는 통치권을 넓게 퍼서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렀고 홍해의 에시온게벨도 차지하였다.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솔로몬(Solomon)은 “평화로운”라는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열왕기상 1-11장 ▶ 역대하 1-9장 ▶ 마6:29,12:42 ▶ 요10:23 ▶ 행5:12, 7:47

3. 인물배경

솔로몬(Solomon)은 다윗과 밋세바 사이의 아들로 대언자 나단은 그를 여디디야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삼하12:25). 그는 약속의 자식이었으며(대상22:9-10), 18세에 자기 형 아도니야가 노리던 왕권을 받아 왕이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뜻에 따라 주님을 위해 극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외에도 여러 건물을 많이 지었으며, 두로와 이집트, 아라비아, 인도, 바빌론 등과 교역하여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풍족하고 명예를 많이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번영과 함께 들어온 유혹에 빠져 사치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으며 특히 각종 오락에 탐닉하여 자기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셨는데 이것은 그가 기록한 성경 기록들 속에 잘 드러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하다가 죽었으며 그의 기록 중에서 특히 전도서는 사람의 본성의 연약함과 지혜와 학식의 무기력함, 번영을 통한 시험과 위기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등을 잘 보여 준다. 이렇듯 솔로몬의 기록은 자연과학과 철학과 도덕을 총망라하였다(왕상4:32-33).

가져야 할 것 VS 버려야 할 것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며,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 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를 드리니라.”(왕상3:4)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물질 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고 그 분께 겸손히 머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한 지혜를 간구함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왕상3:9)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말씀 하셨을 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왕상3:5-10).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부귀나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한 사람이며,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좋은 것(good)과 나쁜 것(bad)을 분별하는 것이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가. 이방 여인을 사랑함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왕상11:1)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함으로써 주변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신 1:16-17). 그는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을 두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왕상11:5)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왕상11:3-4). 또한 솔로몬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왕상11:6). 그는 이방 신을 위해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자신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왕상11:7).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왕상11:9).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왕상11:9-13; 11:31)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네게서 빼앗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왕상11:11)

솔로몬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는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숭배⁵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을 끝까지 지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그의 강대한 왕국은 분열되었고, 영광스러운 성전도 파괴되며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왕국을 빼앗고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10자파를 취하게 되었고(왕상11:3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머지 두 지파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왕상12:21).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 솔로몬이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회개의 말이나 슬픔의 눈물 그리고 죄책감을 가졌다는 성경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전12:13-14). 솔로몬은 그가 비록 깊은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분명 귀중한 진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죄에 빠졌지만, 그가 배운 귀중한 교훈은 지금 이 시간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의 번제 헌물 천 개⁵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왕상3:4, 13)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천일 동안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요?

53)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모세의 정부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이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동시에 나라의 법규를 어긴 것이므로 아주 중대한 죄로 여겨졌고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이 주어졌다. 또한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를 그 안의 모든 것과 함께 멸절시켜야 했다(신13:12-18; 17:2, 5).

54)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194

과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단10:2-3) 교회마다 ‘다니엘 작정 21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므로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해서 능력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여러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양떼를 ‘일천 번제’로 끌고 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결코 천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개역: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흠정역: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더니 그것은 큰 산당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의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의 산당만이 유일하게 천 개의 번제 헌물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었다. 천일 동안 매일 같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어떻게 왕이 왕좌를 버리고 떠나서 근 3년 동안 번제만 드릴 수 있겠는가?

솔로몬의 기사를 가지고 천 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개역성경의 공헌이 지대하다. 개역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을 제사로 처리해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burnt offering’은 원래 ‘태우는 헌물’이다. 하나님께는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을 드리지 ‘번제’ 즉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경우 ‘burnt offering’ 대신 ‘burnt sacrifice’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는데(레1:3, 9, 10, 13, 14, 17 등 18 곳) 이것은 곧 ‘태우는 희생물’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번제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솔로몬의 기사에서도 태우는 희생물 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천 번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희생 헌물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한 답을 준다. 죄를 지으면 ‘죄 헌물’(sin offering)을 드리고 법을 어겼으면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면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을, 자원해서 드리기 원하면 ‘자원 헌물’(freewill offering)을, 음식을 드리고자 하면 ‘음식 헌물’(meat offering)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개역성경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 예물’, ‘소제’ 등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자원 헌물’을 빼고는 모두 ‘헌물’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체를 몽둥그려 제사로 바꾸어서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속건제의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원 헌물’의 경우 개역성경은 레위기 22장 21절과 23절에서 ‘자의로 드리는 예물’ 혹은 ‘낙헌 예물’이라고 해서 헌물의 개념을 살렸는데 사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NIV, NASB 등 부패된 역본들도 모두 ‘헌물’(offering)을 살리고 있다. 아마도 이 사례 역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offering’을 제사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며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일천 번제를 드리라고 강요해서 무지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성전과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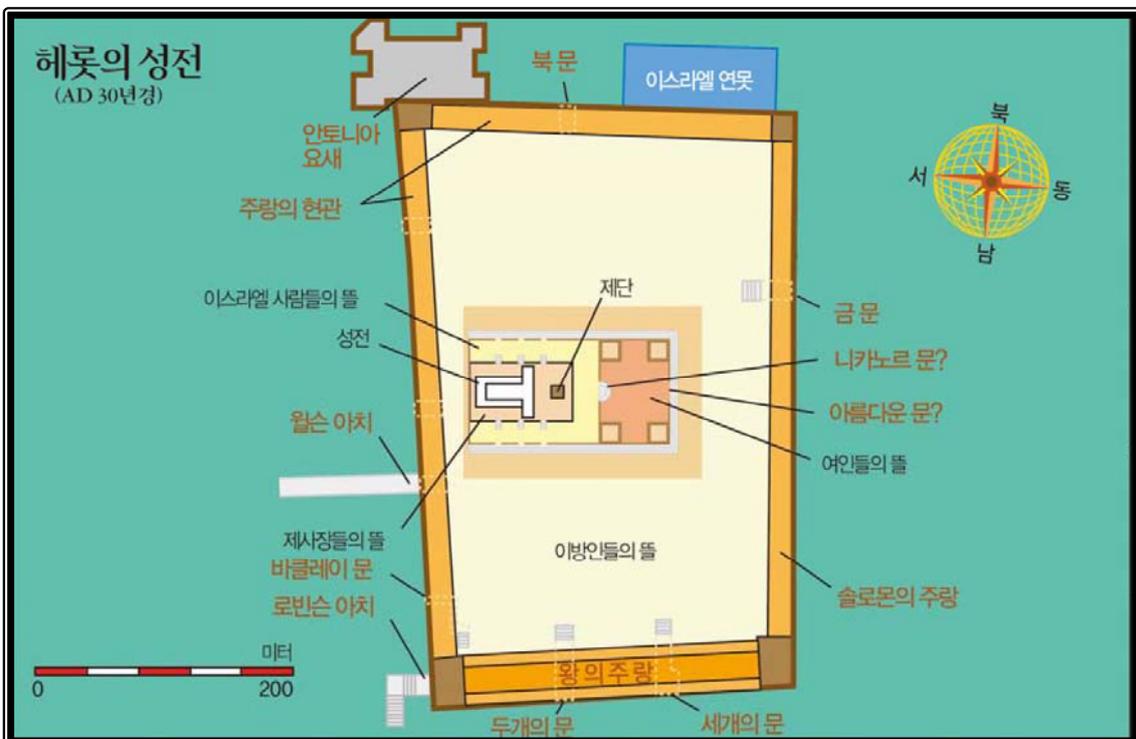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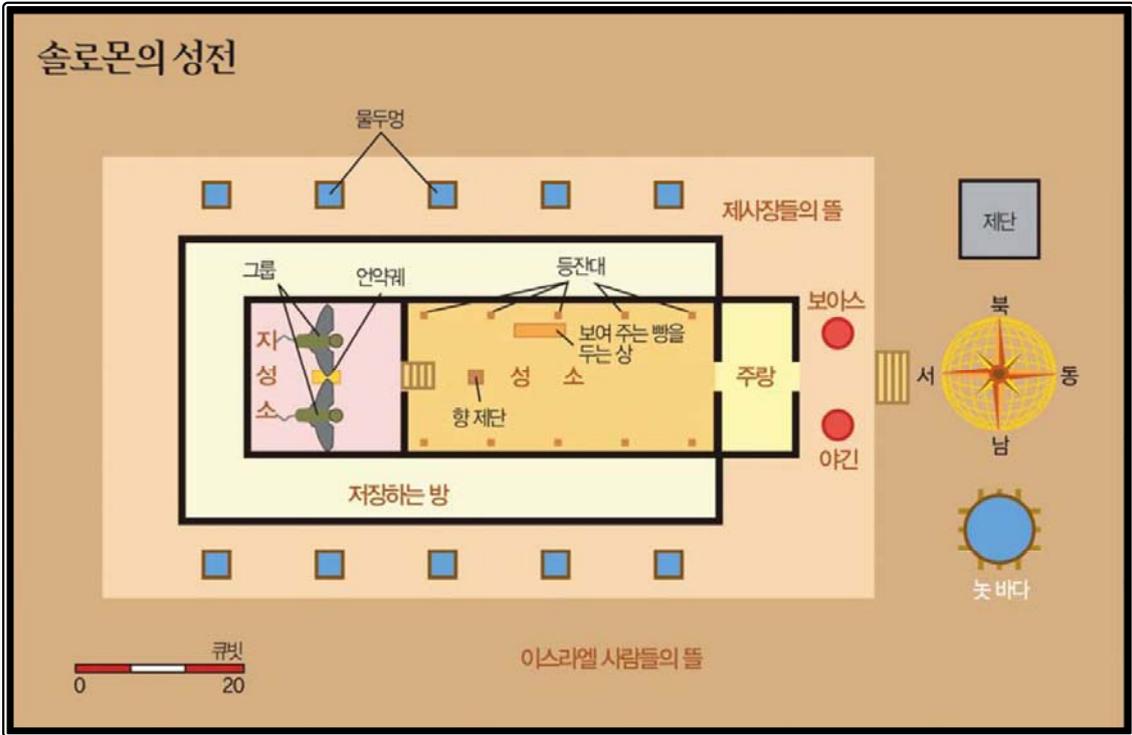


그림3)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레위기 23장)

구약	내용	신약	
1. 유월절 니산월 14일 (레23:4-5; 출12:1-14; 고전5:7)		이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구약의 예표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2. 무교절 니산월 15-21일 (레23:6-8; 출12:15-20; 고전5:6-8)		이 날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 여정을 시작했고 신약시대에 유월절 어린양의 영원한 희생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며 성화의 여정을 시작함.	
3. 초실절 니산월 17일 (레23:9-14; 창8:4; 수5:10-12; 고전15:20-23)		이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착했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먹었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표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4. 오순절 시반월 6일 (레23:15-21; 행2:1)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선물이 새롭게 주어진 날로서 그분께서는 구약시대의 이 날에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의 이 날에 교회에게 성령님을 주셨음.	
5. 나팔절 티쉬리월 1일 (레23:23-25; 스3:1-6; 느8:2-3; 율2:1-2)		이 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날 새로 지은 제단에 첫 예물을 드렸고 구약성경의 대주제인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이 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6. 속죄일 티쉬리월 10일 (레23:26-32; 출30:10; 속12:10-11; 속13:1)		이 날 구약의 첫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으며 미래에 자기들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 날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을 것임.	
7. 장막절 티쉬리월 15일 (레23:33-34; 대하5:2-3; 속14:16-19)		이 날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처를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속죄하시기 위해 이 날 오셨으며 미래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이 명절을 지킬 것임.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나팔절부터 장막절이 성취될 것임)

제20과 요아스

이번 과에서 요아스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요아스라는 중요한 인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기인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가계의 존속을 약속하셨는데(시132:17), 대표적으로 요아스도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인물이다(왕하8:19, 대하21:7).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요아스(Joash)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열왕기하 11-12장

▶ 역대하 23-24장

▶ 마태복음 23장35절

3. 인물배경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왕하11:1) 이상하게도 이세벨은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로 인해 그녀의 남편과 아들인 아하시야⁵⁵)에게 우상숭배와 죄악이 들어가게 되었고(대하21:6; 22:3), 그들이 일찍 죽자 그녀는 유다 왕실의 모든 씨(다윗의 자손들)를 모두 죽여서 왕좌를 차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자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의 손에 의해 구출을 받고 6년 후에 피난처에서 나와 용감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집 옆에서 아달라를 칼로 죽였다(왕하11:1-21; 대하23:1-21). 이렇게 요아스는 유다의 여덟 번째 왕으로서 자기 고모인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일곱 살에 왕이 되었고,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번창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는 잘못된 권고를 따랐고 그 결과 우상숭배가 부활되고 대제사장 스가랴가 백성의 죄를 꾸짖자 자기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버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부터는 재난이 따르기 시작하여 그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성전의 보화를 내주며 가증한 병에 걸려 자기 신하들의 음모에 빠져 죽고 말았고 죽어서도 왕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왕하11:1-21; 12:1-21; 대하23:1-21; 24:1-27).

55) 여호람과 아달라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아하스 혹은 아사랴. 그는 주전 881년경에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왕하8:25; 대하21:17; 22:6). 왕위에 오를 때에 그는 2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로 인해 아합의 집을 따라 악하게 행하였으며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에스라성경사전>



구약성경이 말하는 요아스

1. 다윗의 계보는 거의 소멸 되는 것처럼 보였다(왕하11:1).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라의 증오와 악의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나타난다(왕하 9:27-28). 이렇게 아달라⁵⁶⁾가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면서 다윗의 등불은 거의 꺼져 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요아스를 살려주심으로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고 계셨다. 악한 여인 아달라가 유다 왕족의 후손을 모두 죽이려고 한 것은 그녀가 통치하는데 있어서 계승자의 위협을 없애고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길 원했기 때문이었기에 그녀는 이러한 사악한 일을 행했고 복수심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분노에서 왕의 후손을 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세우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계통을 없애려는 그녀의 결심은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당신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할머니를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아달라는 그렇게 하였다.

2. 다윗의 족보는 어린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 보존되었다(왕하11:2-3).

열왕기하 11장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요아스는 남아있는 다윗의 유일한 후손이었는데, 만일 요아스가 죽음을 당했다면 다윗의 계보는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에 그분은 다윗에게 행하신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요아스의 고모이자, 아하시야의 여동생)는 요아스를 구출하여 주의 집(the house of the LORD)에서 육 년 동안 숨어 있게 하였고, 그 때 아달라는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숨겨 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는데, 비록 다윗의 후손은 겨우 한 생명으로 명맥이 유지되면서 6년 동안이나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⁵⁷⁾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의 손 안에 한 생명을 맡겨 주신 것이며, 이것은 남성 후손들을 근절시킴으로서 장차 오실 자인 약속된 구원자 곧 여인의 후손을 멸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여러 시험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만일 아달라에 의해 다윗의 후손들이 멸망했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3. 요아스의 출현을 위한 여호야다의 역할(왕하11:4-11)

이제 요아스는 6년 동안 숨어 지냈으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일곱째 해에 사람을 보내어 치리자들을 불러 주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왕의 아들인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 왕을 위해 주의 집을 주의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

56)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성서의 대표적인 악역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딸 아달라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녀는 유다의 왕 여로함과 결혼했다. 부모처럼 권력을 좋아했던 아달라는 아들과 남편이 모두 죽자 자신이 직접 유다 왕국을 다스렸다. 그녀는 정적을 원치 않았으므로 왕족 혈통의 아이들을 일흔 두 명이나 살해했다.-<바이블 키워드>

57) 대제사장으로 그는 왕권을 찬탈한 아달라로부터 어린 왕자 요아스의 생명과 왕권을 보호했으며 그의 지혜와 경건함으로 인해 그가 죽을 때까지 유다 왕국은 복을 받았다. 그는 130세에 죽어서 왕들이 받는 명예를 받고 무덤에 묻혔다(왕하11:1-21; 대하23:1-21; 24:1-27).

였다. 이후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며 증언 책을 주게 되고, 이에 치리자들과 백인 대장들 그리고 호위병들과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는 손벽을 치며 기뻐하였다.

또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주도했던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요아스의 출현을 잘 계획한 사람이며, 기술적으로 호위대를 나누어 배치시키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서 어린 왕에게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인물이다. 특히 4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대장들과 호위대를 불러서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주의 집에서 맹세를 하도록 한 뒤에 살아남은 왕의 아들인 어린 요아스를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살아있는 왕의 아들을 직접 바라본 사람들의 심경은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 사건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안에서 소망을 본 것이며, 바로 그 순간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된 것 일이었다.

☛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즉시 어린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2절에는 아래와 같이 요아스에게 주어진 능력과 의무와 영적 지도력의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왕하11:12).

- a. 요아스에게 왕관이 씌워짐-왕의 권세가 주어짐
- b. 요아스가 증언 책을 받음-그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
- c. 요아스에게 기름이 부어짐-영적 축복의 증거



요아스(여호아스)의 통치(열왕기하12장, 역대하 24장)

“예후의 제칠년에 여호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브엘세바의 시비아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니라.”(왕하12:1-3)

이제 요아스(여호아스)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는 7세에 왕이 되어 사십 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통치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성취된 일은 아달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성전을 그것의 원래 상태로 세우고 견고하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역대하 24:7-14).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해 선을 행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130세에 죽었는데(역대하 24 : 15-16),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을 주던 때에는 주의 눈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지만, 여호와다가 죽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통치자들이 왔을 때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 하나님을 버리고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이러한 범법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대하24:17-18).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증언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대하 24:19).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⁵⁸⁾를 대적하여 음

58) 성경에는 여러 명의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며,

모를 꾸미고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대하24:20-21).

이제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는 상태에 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아스는 적은 무리의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들이 쳐들어 올 때,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요아스를 치고 심판을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대하24:22-24). 결국 큰 병을 앓던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 그의 침상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는 다윗의 도시에는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대하24:25-26).⁵⁹⁾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Joash)

타락한 요아스는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자신의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요아스(여호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물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I. 기드온의 아버지-그는 므낫세의 아비에셀 가계에 속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바알을 섬겼으나 자기 아들 기드온이 우상숭배를 타파하자 그를 따라 주님의 편에 섰다(삿6:11, 25-32).

II. 대언자 미가야를 지킨 관원-아합이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대언자 미가야를 지킨 관원(왕상22:26; 대하18:25).

III. 아하시야의 아들-유다의 여덟 번째 왕으로 요엘 대언자가 그의 시대에 대언하였다.

IV.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겸 왕위 계승자-그는 칭찬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그는 엘리사를 존중하였고 그가 죽을 때에 그를 찾아갔으며 거기서 시리아를 세 번 쳐서 이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워 이겼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때에도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왕하 13:9-25; 14:1-8; 대하25:1-28).

신약성경이 말하는 요아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Zacharias)의 피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Zecharah)와 관련된 인물인 요하스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언자 사가랴는 주의 집 뜰 안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라이며, 바로 그의 부친이 바라가(여호야다를 의미함)였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해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연관되어 나오는 인물이며, 이것은 스가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요아스의 행적에 관해 신약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참고 구절이기도 합니다.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중 열한 번째 인물인 스가랴서의 기록자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59) 참고로 여호야다는 다윗의 도시에 왕들 가운데 묻혔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대하24:16)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

